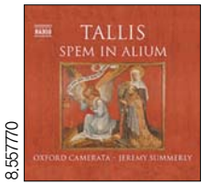
New Releases

NAXOS
www.naxos.com

8.5577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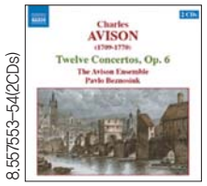


Tallis: Spem in alium, Missa Salve intemerata

Oxford Camerata, Jeremy Summerly, conductor

낙소스 이달의 CD.
탈리스의 탄생 500주년 기념음반. 폴리포니의 정수를 보여주는 40성부를 위한 모테트 '스펨 인 알리움'을 중심으로 작곡가의 라틴어 및 영어 텍스트 종교합창곡들을 담았다.

8.557553-54(2CDs)



Avison: 12 Concertos. Op.6

The Avison Ensemble, Pavlo Beznosiuk

바로크 시대 영국 작곡가 찰스 아비손(1709-1770)이 협주곡 12곡을 수록하고 있는 음반이다. 아비손은 그로브 사전에서 **"18세기 영국의 가장 중요한 협주곡 작곡가"**라고 칭찬했던 바로 그 인물이다. 음반에 담긴 12 협주곡들은 신선하고, 구조적으로도 완벽하고 표현성이 강렬한 걸작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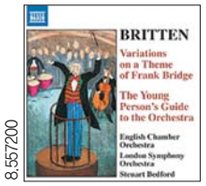
8.557125

Schubert: String Quartet No.15 Five German Danmces, D.90

Kodaly Quartet

낙소스의 달라박스 코다이 사중주단의 슈베르트 시리즈 완결작.
슈베르트의 현악사중주 15번은 작곡가의 사망 직전에 마무리된 그의 마지막 현악사중주이다. 반면 '독일춤곡'은 16세 때 완성한 풋풋한 매력의 작품.

8.557200



Britten: Young Person's Guide to the Orchestra

London Symphony / English Chamber
Steuart Bedford, conductor

금세기 최고의 브리튼 스페셜리스트가 지휘한 '청소년 관현악 입문'
퍼셀의 선율을 기조로 한 브리튼의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입문'은 제목 그대로 관현악에 사용되는 각 악기들의 특징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작품이다. 스승 프랑크 브리지의 테마에 의한 변주곡 역시 작곡가의 대표적인 관현악 걸작의 하나.

New Release

8.557331 Zemlinsky: Piano Music
Silke Avenhaus(piano)
낭만 피아노음악의 감추어진 마지막 걸작들.

8.557287 Milhaud: Orchestral Music
Lille National Orchestra, Jean-Claude Casadesus(conductor)
재즈의 이디엄을 도입한 최초의 작품 '세상의 창조'.

8.557588 Ince: Symphony No.3 & 4
Prague Symphony Orchestra, Kamran Ince(conductor)
자신만만하고 개성적이며 매혹적인 작품세계 -뉴욕 타임즈

8.557195 Buxtehude: Organ Music
Craig Cramer(organ)
바흐를 예비한 북독일 오르간 악파의 거장 북스테후데의 코랄 프렐류드.

8.557321 Rossi: Toccate and Correnti
Sergio Vartolo(harpsichord)
이탈리아 건반 음악의 대가가 남긴 진취적인 작품들.

8.557324 Berkeley: Chamber Music
Schirmer Ensemble
20세기 전반기 영국을 대표하는 작곡가의 매력적인 실내악 작품들.

8.557672 Penny Merriments: Street Songs of 17th Century England
The City Waites
17세기 런던을 향한 흥미진진한 과거여행.

8.557151 Bloch: America, Suite Hebraique
Lucnica Chorus, Dalia Atlas(conductor)
음악으로 표현된 미국의 역사.

8.557412 Das Gansebuch(The Geese Book)
Matthias Ank(organ), Janka Szendrei(conductor)
500년 전 독일의 옛 노래들.

8.557787 Rheinberger: Organ Concertos Nos. 1 & 2
Paul Skevington(organ), Timothy Rowe(conductor)
오르간과 오케스트라가 펼치는 화려한 승부.

8.555722 Weiss: Lute Sonata Vol.6
Robert Barto(Baroque Lute)
정상급 류트 연주가 바르토의 세련된 연주를 담은 음반.

8.660152-54(3CDs) Wagner: Tristan & Isolde
Royal Swedish Opera, Leif Segerstam(conductor)
독일 출신의 새로운 바그너 히로인 헤드비히 파스벤더의 이졸데의 열창과 스웨덴 왕립 오페라 관현악단의 놀라운 연주가 결합된 주목할만한 음반.

8.556814 Cinema Classics 2005
콜래터럴(G선상의 아리아), 클로저(코지 판 투테 중 바람아 양전하라), 아비에이터(토카타와 푸가), 레이디스 인 라벤더(타이스의 명상곡), 맨 온 파이어(월광), 퍼니셔(여자의 마음)

Naxos American Classics

8.559196 Nancarrow: Pieces for Small Orchestra
Continuum, Joel Sachs(conductor)
미국 현대음악계에서 가장 개성적인 작품세계를 보여주는 작곡가의 한 사람인 콘론 난카로우의 독특한 작품들.

8.559249 Bolcom: Songs
William Bolcom(piano), Carole Farley(soprano)
가장 개성적인 미국 작곡가의 매혹적인 가곡 컬렉션. 생생한 녹음은 두 연주자의 뜨거운 열정을 고스란히 전달해 준다. **Gramophone Editor's Choice 2005/6**

DVD New Rele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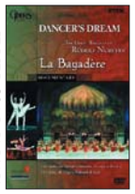
TDK DVD DVW-BLSYL

필리포 탈리오니 :
라 실피드

TDK DVD DVW-CORLF

라 페니체 극장 재개관 기념 갈라

TDK DVD DVUS-BLDDL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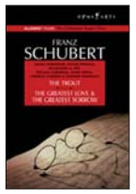


라 바야데르
-다큐멘터리

TDK DVD DVW-OPDG

모차르트 :
돈 조반니

OACN 0903 D



슈베르트 :
송어

OA 0923D

라모 :
우아한 인도의 나라들

OA 0913D

바그너 :
신들의 황혼

21세기 음악예술의 선구자
Aulos music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98-38번지 삼흥빌딩 2층 전화 : 02-922-0100, 팩스 : 02-922-2522 www.aulosmusic.co.kr

www.aulosmusic.co.kr
Monthly
Aulos news
월간 아울로스 뉴스 | June 2005

Legendary Singer
베냐미노 질리

Hot Issue
스베틀라노프의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전집

Best Compilation
사색, 서정으로 가득한 〈아침여행〉

DVD of the Month
피사-디스카우 〈아름다운 물방앗간 아가씨〉

연둣빛, 잿빛 서정으로 가득한
아침여행(A Morning Trip)

소리를 담지 않았습니다.
그럼처럼 아름다운 아침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푸른 산과 들, 아침이슬과 산소바람을 만나게 해주고,
차가운 아침경치와 대조되는 아늑한 실내공간을
느끼게 해주는 음악, 그리고 삶에 대한 따스하고 애틋한
사색을 담았습니다. 음악을 들을 때는 많은 생각을 하게 했고,
음악이 끝나면 촉촉한 여운이 남도록 만들었습니다.

사색, 서정 가득한 아침 음악들과의 여행

인간은 우주의 먼지 같은 존재다. 우주적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이란 그렇게도 하찮은 미물일 수가 없다. 하지만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 라는 파스칼의 말을 기억한다. 그런 미물이 철학을 하고 예술을 하며 영원성을 얘기한다. 인간의 육체는 유한하고 너무도 작지만, 인간의 정신이란 우주를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무한하고 크다. 그리고 칸트의 말처럼, 인간은 그런 위대한 정신으로 이 우주만물에 가치를 부여하는 아주 특별한 존재다. 이 세상에 인간이 없다면, 의의나 가치를 지닌 것은 아무 것도 없을 것이다.

아침이란 것도 그렇다. 저녁에 잠을 자면 다음날 어김없이 다가오는 것이 아침이고, 천문학적 의미로 보면 지구가 태양을 조금 더 돌아가면서 생긴 우주 현상에 불과한 것이 그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정신은 아침을 그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하지 않는다. 전날과는 다른 날과의 만남, 전날의 기분과는 다른 새 기분과의 만남. 어제 하던 익숙한 일이 오늘 아침으로 이어지더라도 그것을 새롭게 새기게 만드는 것이 아침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침이란 확실히 새로운 만남이다. 그리고 아침은 무한한 잠재력이다. 최근 '아침 형 인간 '이란 말이 화제가 되었지만, 비단 사업가뿐만 아니라 인류 문화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위인들이 대개 아침을 잘 맞이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아침은 인간의 많은 계획을 담고 있는 가능성이요 풍성한 원천이다.

필자는 이런 생각을 하며 아침의 음악들을 골랐다. 물론 선택하는 사람의 주관이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일이었고, 결국은 필자의 경험을 뒤져 오래 전부터 가슴에 깊이 각인되어 있던 곡들만을 추려야 했다. 우선 이른 아침 확 트인 자연으로 나가 푸른 산과 들을 만나고 싶게 해주는 음악들을 불러왔다. 해뜨기 전에 산책길을 나서본 사람들은 그 정취를 충분히 이해하리라! 반대로 차가운 바깥 경치가 내다보이는 창가에서 느끼는 아늑하고 포근한 정감을 담은 음악들도 선택했다. 또 무슨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기대감을 갖게 하는 기분 좋은 음악도 포함시켰고, 자스민 향기처럼 사랑 이야기를 날리는 음악도 잊지 않았다. 수록곡들을 대충 훑어봐도 느낄 수 있겠지만 아침 음악이라고 해도 가볍게 기분만 들뜨게 하는 음악들은 배제했고, 음악을 들으며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사색적인 음악들을 위주로 뽑았다. 음원 선택

알프레드 시슬레 '밤나무 숲의 오솔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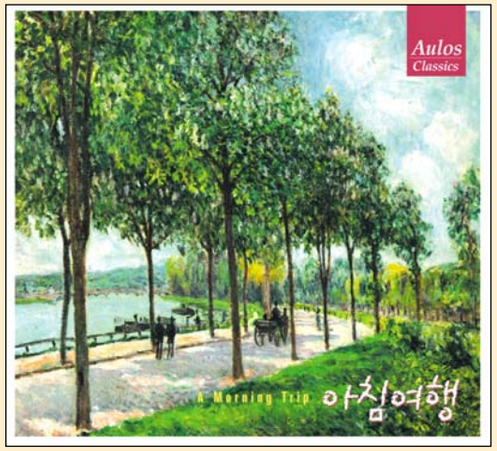
에도 신중을 기했다. 같은 곡이라도 연주자에 따라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필자의 의도와 감성을 잘 충족시키는 음원을 가려 뽑는 수고를 따로 해야 했다.

몇몇 해설부분에서는 레퍼토리에 관한 사항 외에 필자의 경험과 관련된 가벼운 인상까지 첨부했다. 필자의 여행노트에서 조금씩 가져왔는데, 필자가 간직한 감성 및 메시지를 함께 나눔으로써 궁극적으로 이 음반의 컨셉트를 이해시키기 위한 의도였다. 하지만 누구나 같은 음악을 듣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 즉 필자의 경험과는 다르게 혹은 덧붙여서 '내겐 이 곡에 이런 경험이나 이미지가 있다' 라고 달리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예술은 음악의 상태를 동경한다' 는 월터 페이터의 언명은 음악의 조건이 무한대의 경험을 포용한다는, 이른바 확장해석을 가능케 했다고 믿는다. 필자의 주관을 참고하며 공감하되 그것에 붙잡히지는 말고 더 자유롭게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한 가지 더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이 음반의 음악들이 일종의 흐름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겉보기에 아침이 열리고 태양이 뜨고 지구가

대자연을 맞이하는 시간적 흐름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심리적 흐름이다. 그런 흐름은 이 음반을 처음부터 끝까지 편안하게 들을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믿는다.

근래 '웰빙' 이란 말이 한창 유행하고 있다. '행복하게 사는 것' 이란 말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보는데, 하지만 홈 쇼핑이나 기타 상업적인 용도로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주로 물질적 조건을 얘기하는 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 안타까운 일이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마음속에 있는 것 같다. 내 형편이 어떻든 아침에 차 한 잔 놓고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며 누구 부럽지 않은 정신적 풍요와 평안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웰빙' 이 아닐까 싶다. 인간이 동물만은 아닌 이상 잘 먹고 잘 사는 일만이 능사가 아닐 것이다. 많이 느끼고 많이 생각할 수 있어야 진정으로 '웰빙' 하는 인간이라고 믿는다. 좋은 음악은 진정한 '웰빙' 을 영위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늘 따스한 정신을 간직한 음악들을 곁에 두고 있어 행복한 아침이 되기를 바란다. 이 음반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글. 이성일



AMC2-056

~ 수록곡 ~

1 기차여행의 동반자(9:08)
슈베르트: 안단테 운 포코 모소 (피아노 3중주곡 중에서)

2 브로드히스 숲길을 드라이브하며(3:38)
엘가: 아침의 노래

3 프랑스 할아버지의 표정에서(3:38)
캉틀루브: 바일레로(오베르뉴의 노래 중에서)

4 내 마음 그대 곁으로
드보르작: 알레그로 모데라토

5 좋은 사람 만날 것 같은 예감(4:26)
슈베르트: 아침인사(아름다운 물방앗간 아가씨 중에서)

6 사랑은 끝없는 항해(4:49)
차이코프스키: 뱃노래(사계중에서)

7 정원에 흩날리는 자스민 선율(6:36)
들리브: 꽃의 이중창(라크메 중에서)

8 연분홍 커튼이 드리워진 실내(5:06)
쇼팽: 로시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

9 저 시간 너머 어딘가에(2:52)
라흐마니노프: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

10 불쌍한 음악선생님을 위해(5:28)
말러: 나는 이 세상에서 잊혀졌습니다

11 고귀한 영혼들에게 바치다(7:42)
포레: 파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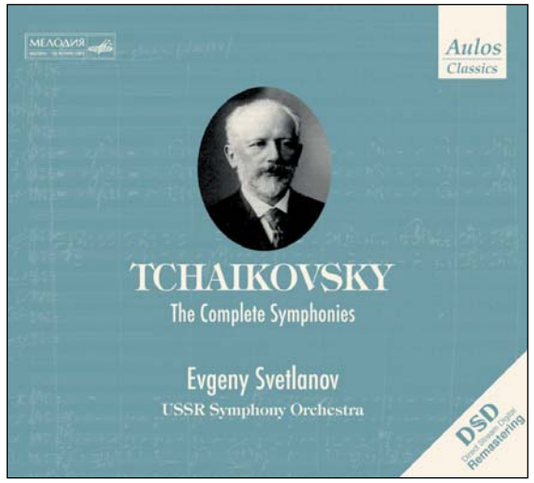
12 일찍 떠난 예술가를 기억하며(7:37)
모차르트: 아다지오(클라리넷 협주곡 중에서)

13 비가(2:36)
할보르센: 늙은 어부의 노래

14 작열하는 태양을 향하여(3:42)
엘가: 님로드(수수께끼 변주곡 중에서)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전집

연주: USSR심포니 오케스트라, 지휘: 예프게니 스베틀라노프



AMC2-057(4CDs)

활화산 같은 폭발력의 그 유명한 1967년 녹음전집

펭귄가이드 등 세계적 권위의 음반 가이드들이 격찬했던 음원, 애호가들 사이에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불멸의 명반으로 인식되어 온 감동적인 아이템이 아울로스 뮤직의 노고로 출시되었다. 예프게니 스베틀라노프 지휘의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전집이 그것이다. USSR심포니 오케스트라를 35년간이나 이끌며 러시아 색채가 강한 연주로 애호가들을 매료시켰던 스베틀라노프, 그는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해석에 관한 한 최고 전문가로 손꼽힌다. 만년에는 유려한 흐름이나 달콤함을 즐겼지만, 그의 60, 70년대 녹음을 들어보면 정교한 세부묘사를 기저로 하고, 불같은 기백과 격앙된 감정으로 거칠게 밀어붙이는, 이른바 '소비에트 붉은 군대 연주스타일' 의 전형을 보여준다. 물론 1967년 녹음된 이 세트도 스베틀라노프의 그런 '불같은 연주' 스타일의 모범적인 기록이다. 풍성한 향연을 펼치는 현악기들, 돋은 힘줄 같이 포효하는 금관악기들, 아니 오케스트라의 모든 악기들이 활화산 같이 폭발하는 압도적인 연주다. 차이코프스키의 교향곡은 이제까지 수많은 서구의 거장들이 다뤄왔기 때문에 사실상 서구 작곡가의 레퍼토리처럼 인식되어 있다. 하지만 스베틀라노프가 연출하는 차이코프스키의 음악은 그 색채가 다르다. 그의 러시아 색감은 서구화된 우리의 귀에 아주 새로운 경험을 준다. 워낙 유명한 음원이기에 연주에 대한 특별한 찬사는 필요없을 것이다. 다만 이번 전집도 충격적으로 향상된 음향이 관건이다. 아울로스 뮤직이 이전에 내놓은 키릴 콘드라신의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전집에서도 국내외 비평가와 애호가들이 가장 많이 절찬했던 부분은 역시 놀랍도록 개선된 음향이었다. 똑같이 DSD 리마스터링으로 개선시킨 이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전집도 녹음연대를 의심케 할 정도로 음향이 좋아졌다. 분명히 쇼스타코비치로 놀란 애호가들의 가슴을 다시 놀라게 할 것이다. 4CD이지만 2CD가격.

낙소스의 밀켄 아카이브(Milken Archive)

아메리카 유태음악의 뿌리를 찾아서

MILKEN ARCHIVE
American Jewish Music

유태인계 미국인의 음악의 역사도 어언 350년의 긴 세월 속에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러다보니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음악가들이 알고 보면 유태인인 경우가 자주 있다. 조지 거쉰, 쿠르트 바일, 레너드 번스타인, 다리우스 미요 등을 쉽게 떠오르는 유태인 음악가로 꼽을 수 있겠는데, 이번에 낙소스 아메리카에서는 본격적으로 유태인계 미국인 작곡가의 음악을 시리즈로 묶어 내었다.

낙소스 아메리카에서 출반되긴 했지만 그 주체가 되는 것은 '밀켄 아카히브' 이다. 유태인 사업가 로웰 밀켄과 그의 가족들은 오랫동안 유태인들을 위한 사업들을 펼쳐왔다. 교육이나 복지, 그리고 유태문화의 보존 등에 힘을 기울이는 이들의 행보로 볼 때 유태인 작곡가들의 작품들을 망라하기 시작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들은 근 2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30여 종에 이르는 음반을 선보였다. 물론 모두가 새로운 레코딩이며, 내용 또한 다양하다.

우리나라에 우선 소개된 것은 10여종 정도인데, 유태인 음악 기초편 쯤이라고 하면 적합할 음악들을 선보이고 있다. 아무래도 맛보기로 시작해야할 음반은 '미국 유태음악 입문' 이라는 타이틀의 음반(8.559406)이다. 데이브 브루벡의 정통재즈, 번스타인의 이스라엘 풍 오라토리오작품을 비롯하여 클레츠머와 같은 전통 유태민속음악들을 망라하고 있다. 이 음반 한 장이면 유태인의 음악이 어떤 것인지 대충 간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수입된 대부분의 앨범은 유태인의 정서와 종교의식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쿠르트 바일의 작품 '영원할 길' (8.559492)은 유태인의 역사와 이데올로기, 그리고 그들의 예배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정서를 담은 오페라이며 음악극, 그리고 오라토리오이자 성서를 중심으로 서사적 형태의 성서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음반에는 이중 일부만이 수록되어 있다. 원곡의 규모는 실로 방대하며 유태인들의 고난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스토리와 음악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역작이다. 연주와 녹음 모두 훌륭하다. 쿠르트 바일을 '서푼짜리 오페라' 의 작곡가 정도로 인식해왔던 국내 애호가들에는 더없이 반가운 음반이라고 하겠다. 한편 작곡가 폴 쇤필드의 전형적인 현대음악인 비올라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8.559418)도 이채롭다. 시리즈 전체에 담겨있는 음악 하나하나에 깃들인 수고로움과 열정이 예사롭지 않다. 선곡은 물론 연주에도 기꺼이 박수를 보낼만하다.

글 : 유영희

이 본문은 월간 코다클래식에 기고한 글을 옮긴 것입니다. 전제를 허락하여 주신 코다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메리카 유태음악의 뿌리를 찾아서 **밀켄 아카이브[Milken Arch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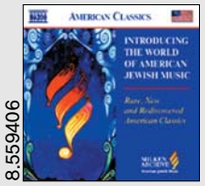
8.559404

카스텔누오보–테데스코

나오미와 룻, 안식일 밤을 위한 전례, 할아버지의 기도 발췌 외

네빌 매리너(지휘), 아카데미 오브 성 마틴 인더 필드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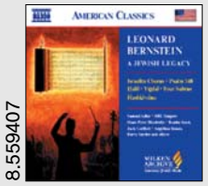
무솔리니를 피해 미국에 정착하였던 이탈리아 유태계작곡가가 자신의 뿌리를 음악에 담았다.



8.559406

Introducing the World of American Jewish music

밀켄 아카이브가 보유한 방대한 기록들을 찾아가는 최고의 입문서. 시리즈의 기존 발매 및 발매예정 음반들에서 발췌한 20여개의 트랙들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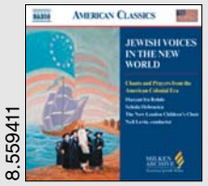
8.559407

번스타인

유태전설, 결혼춤곡, 4명의 유태토박이

한스 페터 블로흐비치(바리톤), BBC 싱어즈 외

미국현대음악계 최고의 슈퍼스타가 만들어낸 진한 유태색채의 작품들.



8.559411

신세계의 유태 목소리

미국식민지시대 유태인들의 찬트와 기도

닐 레빈(지휘), 스콜라 헤브레이카 외

17세기 미국에 정착한 유태인들의 세파르디 음악들.

8.559413

아돌프

사랑과 고통의 라디노 노래들, 현명한 미쉘스, 회오리 탈출

존 알러(테너), 제러드 슈워츠(지휘), 시애틀 심포니 외

2005년 그래미상 올해의 클래식 프로듀서(데이빗 프로스트) 수상작. 1492년 이베리아반도로부터 유태인들이 대량 추방되던 때에 만들어진 시들이 혼 반주의 독특한 가곡으로 변형되었다.

8.559416

칸토르 벤지온 밀러가 부르는 칸토리얼 콘서트

칸토르 벤지온 밀러/엘리 재프(지휘)/바르셀로나 심포니 외

현존 최고의 유태 칸토르인 벤지온 밀러가 유태전통음악의 정수를 들려준다.

8.559419

유태기념일의 노래들

칼립–안식일, 카플란–아브라함 시편

빈소년합창단.

세계최고의 소년합창단이 부르는 유태인들의 노래. 에루살렘 대성전의 칸토르 나프탈리 헤르스틱이 함께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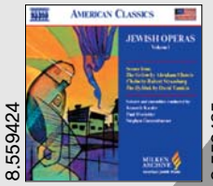
8.559423

와이너

거울, 유월절제물, 춤과 작은 이야기

리처드 스톨츠만(클라리넷), 다니엘 스테프너(바이올린), 에후디 와이너(피아노) 외

2005년 그래미상 올해의 클래식 프로듀서(데이빗 프로스트) 수상작. 실내악 후보작. 미국의 대표적인 현대작곡가 와이너가 유태전통음악인 클레즈머 스타일로 작곡한 작품들.



8.559424

유태오페라 1집

엘스타인–골렘 발췌, 스트라스버그–첼름 발췌, 탐킨–디복 발췌

케네스 키즐러(지휘), 미시간대학 심포니 오케스트라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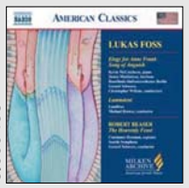
2005년 그래미상 올해의 클래식 프로듀서(데이빗 프로스트) 수상작. 20세기 3명의 미국 유태작곡가들의 민족색 짙은 오페라 3편을 함께 묶었다.

8.559425

Weisgall: T' Kiatot

Gerard Schwarz, conductor
Avner Itai, conductor

유태전통음악과 무조음악의 독특한 결합체.



8.559438

루카스 포스

고통의 노래, 안네 프랑크의 일기, 람데니, 아돈 올람

제러드 슈워츠(지휘), 베를린 방송교향악단 외

안네 프랑크의 절절한 사연들을 루카스 포스가 감동적인 음악으로 엮어내었다.

8.559442

창세기 모음곡

쉰베르크, 미요, 카스텔누오보테데스코, 스트라빈스키 외

제러드 슈워츠(지휘), 베를린 방송교향악단

2005년 그래미상 올해의 클래식 프로듀서(데이빗 프로스트) 수상작. 2차대전을 피해 미국으로 몸을 피했던 7명의 유명 유태계 작곡가들의 흥미진진한 협력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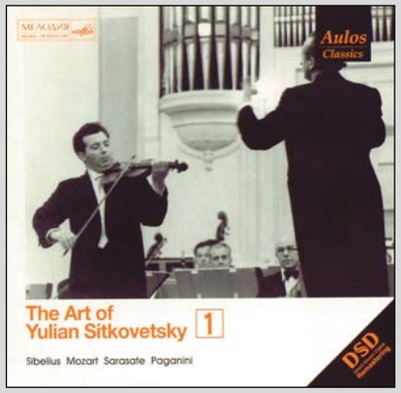
8.559457

Weinberg: Piano Concerto No.2

Karl Anton Rickenbacher, conductor
Bingham Quartet

20세기 중반에 완성된 로맨틱 피아노 협주곡.

아울로스 뮤직의 라이선스 음반은 해외에 엄청난 양이 수출되고 세계의 유력한 비평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호부터는 영국의 대표적인 클래식 음반 전문 리뷰 사이트인 뮤직웹–인터내셔널에 실린 리뷰를 소개합니다.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 받는 아울로스 뮤직의 라이선스 음반들을 확인해주세요.



AMC2-054

AMC2-055-1~6(6CDs)

율리안 시트코베츠키의 예술 1집

33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한 러시아의 바이올리니스트 율리안 스트코베츠키는 서방에서 음반으로 접하기 극히 어려운 연주가의 한 사람이다. 이 첫 음반은 비록 다양한 음반들로부터 발췌한 트랙들을 엮은 일종의 편집음반이나 추종자들에게 대단히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음반의 중심 작품인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협주곡은 프라하에서 게나디 로제스트벤스키의 아버지인 니콜라이 아노소프가 지휘하는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협연한 것이다. 나는 최근 긴즈버그와 협연한 리스트 음반에서 아노소프의 탁월한 협주곡 반주 솜씨에 감탄했었는데, 이번 음반에서도 동일한 강도의 감동을 경험할 수 있었다. (앞으로 아울로스뮤직에서 아노소프의 레코딩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한다.) 시트코베츠키는 두 고음 현에서 대단히 빠른 비브라토를 구사하며, 중음역에서는 특징적인 매력적인 소리를 만들어낸다... 1악장에서 드보르작을 연상케 하는 목관의 연주, 카덴차에서 왼손의 놀라운 활약상 등이 특징적이다. 금관은 우렁차고 당당하며 연주는 전반적으로 대단히 빠르며 열띠다. 시트코베츠키는 항상 코간과 비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주에서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첫 악장의 클라이맥스의 한 두 부분에서는 하이페츠의 영향을 보여주는데 실제 그는 전반적으로 하이페츠 스타일의 템포를 취했다. 연주의 또 다른 특징은 그가 이따금 악보상의 음표의 약간 아래쪽 음을 연주한다는 점이다. 티크목과 같은 중음역의 음색에서 빠른 고음역에 이르는 젊은 연주가다운 연주로 2악장에서는 다양한 음색과 표정의 변화를 보여주기도 한다... 그의 부인인 벨라 다비도비치와 함께한 〈모차르트 소나타 K378〉에서는 편안하고 여유 있는 고전적인 연주스타일을 보여준다. 매력적으로 맑은 첫 시작부분에서는 과거 비르투오소 시절의 특징인 과장된 연주스타일과 제한된 음조 변화를 찾아볼 수 있다....나는 보다 방대하고 포괄적인 시트코베츠키의 멜로디야 레코딩들이 재발매되기를 기대한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조만간 콘드라신과 함께 한 글라주노프의 협주곡, 바흐의 파르티타 2번, 샤로예프, 바르샤이, 슬로보드킨과 함께한 베토벤과 쇼스타코비치의 현악사중주, 타르티니의 악마의 트릴, 이자이의 소나타 등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 음반에 수록된 〈라 캄파넬라〉는 마크 파버만이 지휘한 멜로디야 전곡음반에서 발췌한 것이다. 그렇다면 전곡 연주는 발매되지 않는다는 의미인가? 만약 이 연주가 DSD 음반으로 재등장한다면 열렬한 환영을 받게 될 것이다. 더 많은 즐거움들이 곧 이어지기를 바란다.

– 조나선 울프

타네예프 사중주단의 쇼스타코비치 현악사중주 전집

이 전집을 고대했던 이들이라면 긴 기다림 끝에 마침내 또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많은 이들이 알다시피 타네예프 사중주단은 쇼스타코비치의 현악사중주 15번을 초연한 단체이며 이들의 그 같은 권위는 연주 전반에 걸쳐 잘 드러난다. 그들의 연주는 전반적으로 생기가 넘치고 진취적이며 이들은 자신들만의 작품에 대한 개념을 확고하게 구축하고 있다. 분명히 말하건대 이 연주는 여러모로 쇼스타코비치 현악사중주 전집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의 하나이며, 단순한 추천을 넘어서 컬렉터들의 필청 음반이다. 녹음상태는 대단히 우수하며 두 개의 박스 세트를 슬립케이스 안에 끼워 넣은 아울로스의 패키지 역시 만족스럽다.

타네예프 사중주단은 미아스코프스키 사이클에서와 마찬가지로 예리한 소리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1번의 시작부분에서부터 다른 경쟁음반들보다 한결 차갑고 선명한 사운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의 극적인 감각은 확대된 화려함을 수반하지 않는다. 2번 서곡의 민속적인 지속저음은 균형 잡혔으며, 쇼스타코비치 사중주단(Olympia)만큼 듣는 이를 기진맥진하게 만들지 않는다. 그러나 연주자들은 개별적으로 대단히 폭넓은 색채감을 만들어내며, 이들의 운궁과 음색의 조화는 굉장하다. 아다지오 악장에서 블라디미르 오브차레크의 난해한 제1바이올린 파트를 주목하길 바란다. 몇 번이고 감탄하게 되는 것은 2번의 피날레와 같은 광대한 캔버스를 장악해가는 이들의 통제력이다. 이 부분에서 이들은 사려 깊음과 단호함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놓았다. 이러한 점은 1968년 사이클의 첫 시작이 된 3번에서 보다 확고하게 드러난다. 3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에서 이들은 빠른 템포, 선명한 아티큘레이션, 수정같이 맑은 사운드로 무자비할 정도로 차가운 연주를 들려준다. 이들의 경쾌한 피치카토 역시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4번의 서정적인 클라이맥스는 상쾌하게 꾸며졌으며, 안단티노 악장은 너무 무겁지 않으면서도 표정이 풍부하다. 피날레에서 완급조절에 대한 센스는 끝까지 잘 유지된다. 여기서 몇몇 부분은 껄끄러우나 다른 부분들에서는 이들이 추구하는 목적에 잘 부합된다. 5번은 과도하게 빠르지 않으며 능숙하면서도 선명한 연주를 들려준다. 안단테에서의 절제된 멜랑콜리와 강렬한 피날레의 추진력 역시 자연스럽다.

타네예프 사중주단은 네오 바로크 취향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6번의 느린 악장에서 감동적인 친밀감을 보여준다. 허우적거림이나 머뭇거림도 찾아볼 수 없으며, 쇼스타코비치 사중주단이나 보로딘 사중주단의 추종자들 역시 그 단체들의 낭만화된 연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솔한 어조를 들려주는 타네예프의 연주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예외적으로 간결하면서도 양면적인 특징의 7번에서는 가운데 렌토 악장에 정성껏 조성된 비탄의 정취와 열띤 피날레가 만들어내는 강렬한 대비효과가 눈에 띈다. 8번의 경우는 그 역동성이 탁월하다. 8번 2악장의 긴장된 다이내믹은 느린 악장의 낭랑함과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9번의 느린 악장의 대담한 다이내믹과 머뭇거리지 않는 움직임, 이어지는 알레그레토에서의 강렬한 악센트가 인상적이다. 10번은 타네예프의 다소 차갑고 각진 사운드와 잘 어울리는 작품이다. 11번에서는 오브차레크의 1바이올린과 루츠키의 2바이올린이 만들어내는 음색의 조화가 각별하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성긴 텍스처와 날카로운 연주는 짧은 첫 번째 아다지오에서의 신랄한 감정의 분출과 2악장에서의 보다 확대된 중량감 모두를 가능케 한다. 12번의 첫 악장에서는 이들이 파노라마식의 시각으로 작품을 조감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늘어지는 부분이 없으며, 에피소드들은 꼼꼼한 이해력과 상상력으로 준비되었다. 냉혹한 13번은 1시간 정도 분량의 단악장의 작품임에도 무자비하게 앞으로 질주해나가는 역동적인 작품이다. 많은 경쟁자들이 일반적으로 타네예프에 비해 2–3분 정도 더 긴 연주시간을 취하는 편이나 처절함에서 이에 필적할 만한 연주가 없다. 비탄과 의기양양함이 공존하는 14번에서는 계산된 유연함과 톤의 정교함이 두드러진다. 아다지오에서의 피치카토 패시지와 1바이올린이 만들어내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아름다운 선율, 알레그레토 피날레의 바흐풍의 화려한 장식에 주목하길 바란다. 마지막 15번은 베토벤 사중주단의 세르게이 시린스키가 리허설 직후 사망하는 바람에 타네예프에게 초연의 기회가 주어졌던 작품이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연주는 대단히 특별한 가치가 있다. 이 전집은 쇼스타코비치의 현악사중주를 아끼는 이들을 위한 필수음반이다.

–조나선 울프

낙소스 〈베냐미노 질리〉 시리즈에 대하여

이 원고는 저명한 평론가이자 미국 오케스트라연맹 회장인 헨리 포겔이
월간 객석에 기고한 글을 객석의 허락을 받아 전제한 것입니다. 월간 객석에 감사드립니다.

낙소스에서 발매되고 있는 질리 시리즈는 최근 몇 년 동안 접한 히스토리컬 리이슈 음반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발매의 하나로 꼽을 만하다. 시리즈는 이제 8집에 이르렀다. 20세기의 2/4분기에 걸친 매우 오랜 활동 기간 동안 질리는 오페라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자리매김한 이탈리아의 리릭 테너였다. 질리의 독특한 음성은 그 누구와도 다른 부드럽고 감미로운 사운드였다. 질리의 목소리는 음량 면에서 그리 큰 편에 속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 음반을 통해 들었을 때 그는 카니오와 안드레아 세니에 같은 스케일 크고 무게 있는 역할을 부르기에 충분한 목소리를 내뿜고 있다. 원래 리릭 테너였던 점을 감안하면 놀랍다. 그리고 그 음색은 한결같다. 고음에서도, 중저역에서도, 모든 다이내믹 레벨에서 견실한 모습을 보인다. 질리가 가끔씩 나직하게 중얼거리듯 노래하는 결점을 보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는 가능한 모든 다이내믹을 사용했다. 양 끝의 고음과 저음에 더하여 낮은 소리로부터 큰 소리를 한없이 세분화시킨 중역대를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마크 오버트 손이 담당한 이번 복각수준은 지금까지 발매된 음반들을 상회한다. 낙소스는 유통망이 훨씬 더 넓어서 구하기 쉽다는 점과 버짓 프라이스라는 장점까지 있다. 나는 이번 음반들만큼 질리의 존재감과 목소리 전체의 느낌이 살아있는 복각은 찾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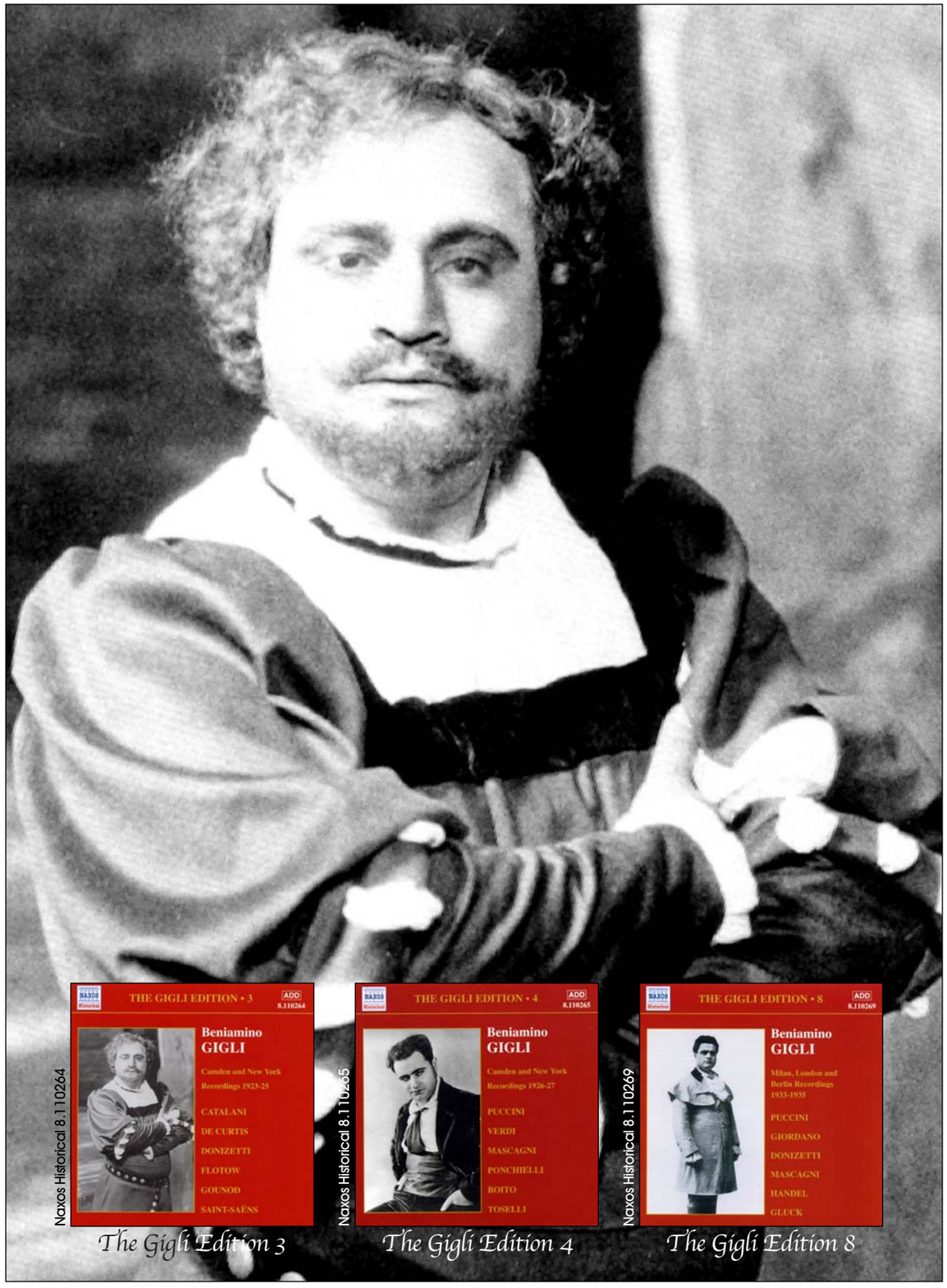
진지한 컬렉터라면 시리즈 전체를 구입해도 무방할 것이나 질리의 이름이 다소 생소한 젊은 애호가들이라면 5,6,8집부터 시작해보길 권한다. 나는 1920년대에서 1930년대에 달하는 시기의 이 음반들이 질리 레코딩의 중심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절정에 달했고, 그 목소리를 생생하게 재생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으로 녹음기술도 발전했기 때문이다.

8집은 컴필레이션 음반에서 여간해서 수록되기 어려운 조르다노의 '안드레아 세니에' 중 3막의 아리아 '나도 한때 군인이었다' 로 시작된다. 비교적 온화한 모습을 연상시키는 이 가수에게서 느껴지는 강렬한 가창력 때문에 놀라게 될 것이다. 8집은 1933년부터 1935년까지 밀라노, 런던, 그리고 베를린에서의 녹음을 주안점으로 삼고 있다. '오 솔레미오' 를 포함하여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 '토스카' , '사랑의 묘약' , '리골레토' , '팔리아치' , '카르멘' 등의 아리아들이 수록되었다. 글루크의 '파리데와 엘레나' , 헨델의 '세르세' 등의 예스런 작품들의 아리아들도 있고, 가곡과 민요 녹음도 엿보인다. '물망초' 한 곡 만으로도 이 음반의 가치는 충분하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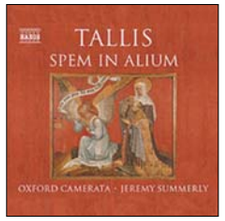
5집은 질리의 가장 유명한 레코딩이라고 할 수 있는 1927년부터 1928년까지 미국 빅터 레코드에서 녹음된 작품들의 일부를 담고 있다. 갈리 쿠르치, 호머, 바다, 데 루카, 핀차가 참가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레코딩인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중의 6중창과 갈리 쿠르치, 호머, 데 루카와 함께 한 '리골레토' 중의 4중창은 우리에게 '황금기' 라는 용어가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준다. 이에 덧붙여 데 루카와 함께 부른 '진주조개 잡이' 중의 이중창, '라 조콘다' 중의 엔초와 바르나바의 이중창 등이 수록되었다.

6집은 1929년부터 1930년에 걸친 뉴욕에서의 레코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곡과 민요 쪽에 밸런스가 맞춰있다. 물론 몇 곡의 중요한 오페라 아리아 레코딩도 포함되어있다.

헨리 포겔 (번역: 류태형)



Naxos New Release (낙소스 신보)



Naxos 8.557770

탈리스: 스펨 인 알리움, 미사 살베 인테르마타 외

옥스퍼드 카메라타 / 제레미 섬머리

낙소스 이달의 CD

탈리스의 탄생 500주년 기념음반. 폴리포니의 정수를 보여주는 40성부를 위한 모테트 '스펨 인 알리움' 을 중심으로 작곡가의 라틴어 및 영어 텍스트 종교합창곡들을 담았다.

Naxos 8.557125

슈베르트 : 현악사중주 15번, 5개의 독일 춤곡 D.90

코다이 현악사중주단

낙소스의 달러박스 코다이 사중주단의 슈베르트 시리즈 완결작.

슈베르트의 현악사중주 15번은 작곡가의 사망 직전에 마무리된 그의 마지막 현악사중주이다. 반면 '독일춤곡' 은 16세 때 완성한 풋풋한 매력의 작품.

Naxos 8.557200

브리튼 :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입문, 프랑크 브리지 주제에 의한 변주곡,

런던 심포니, 잉글리시 체임버/스튜어트 베드포드

금세기 최고의 브리튼 스페셜리스트가 지휘한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입문'

퍼셀의 선율을 기초로 한 브리튼의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입문' 은 제목 그대로 관현악에 사용되는 각 악기들의 특징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작품이다. 스승 프랑크 브리지의 테마에 의한 변주곡 역시 작곡가의 대표적인 관현악 걸작의 하나."

8.557331 **쳄린스키 : 피아노작품집(시골춤곡, 4개의 환상곡, 빛줄기 외)**
실케 아벤하우스, 피아노

8.557287 **미요 : 관현악작품집(세상의 창조, 지붕 위의 소, 프로방스 모음곡)**
릴 국립 오케스트라/장 클로드 카자드쉬

8.557588 **인스 : 교향곡 3번 '비엔나 공성전', 교향곡 4번 '사르디스'**
프라하 심포니 오케스트라/캄란 인스

8.557195 **북스테후데 : 오르간 작품집 Vol.4 (코랄 프렐류드, 칸초네타, 토카타 외)**
크레익 크레머, 오르간

8.557321 **로시 : 토카타와 코렌티**
세르지오 바르톨로, 하프시코드

8.557324 **버클리 : 실내악작품집 (바이올린소나타, 6개의 전주곡, 콘체르티노 외)**
쉬르머 앙상블

8.557672 **한 푼짜리 즐거움들 (Penny Merriments) : 17세기 영국 거리음악들**
더 시티 웨이츠

8.557151 **블로흐 : 아메리카, 헤브라이 모음곡**
하가이 샤함, 바이올린/슬로바키아 방송교향악단/아틀라스 카메라타 오케스트라/달리아 아틀라스

8.557412 **거위들의 책(DAS GANSEBUCH) : 500년 전 독일의 옛 전례음악들**
마티아스 안크, 오르간/스콜라 헝가리카/라슬로 도브세이&안카 센드레이

8.557787 **라인베르거 : 오르간 협주곡 1,2번**
폴 스케빙턴, 오르간/아마데우스 오케스트라/티모시 로우

8.555722 **바이스 : 류트소나타 Vol.6 (7, 23, 45번)**
로베르트 바르토, 바로크 류트

8.660152-54 **바그너 : 트리스탄과 이졸데**
볼프강 밀그람, 트리스탄/헤드비히 파스벤더, 이졸데/군나르 룬드베리, 쿠르네발/레나르 포르센, 마르케/마르티나 디케, 브란게네/왕립 스웨덴 오페라/라이프 제거스탐

8.556814 **시네마 클래식 2005**
콜래터럴 (G선상의 아리아), 클로저 (코지 판 투테 중 바람아 얌전하라), 아비에이터 (토카타와 푸가),
레이디스 인 라벤더 (타이스의 명상곡), 맨 온 파이어 (월광), 퍼니셔 (여자의 마음), 스파이더맨 2, (송어), 오션스 트웰브(영웅교향곡), 노트북 (전주곡), 사이드웨이 (알함브라의 추억), 레이디킬러 (보케리니 미뉴엣), 나쁜 산타 (세비야의 이발사 서곡)

Naxos American Classics

8.559196 **난카로우 : 소편성 관현악을 위한 작품들 (전주곡과 블루스, 소나티나, 현악사중주 1번 외)**
콘티눔/조엘 삭스

8.559249 **발콤 : 가곡**
캐롤 팔리, 소프라노/윌리엄 발콤, 피아노
"Gramophone Editor's Choice 2005/06"

8.559424 **유태 오페라 Vol.1 (엘슈타인-골렘, 스트라스버그-첼름, 탐킨-디북)**
여러 성악가들/미시간 대학 오케스트라/케네스 키즐러,체임버 오페라 앙상블/폴 호스테르,슬로바키아 방송교향악단/스티븐 군젠하우저

8.559457 **와인버그 : 피아노협주곡 2번, 현악사중주 Op.55, 안식을 아침전례**
호르헤 페데리코 오소리오, 피아노/바르셀로나 심포니/칼 안톤 리켄바흐, 빙엄 사중주단, BBC 싱어즈/케네스 키즐러

8.559425 **와이즈갈 : 비둘기의 시편, 4개의 코랄 에튀드, 동쪽정원, 트키아토트**
시애틀 심포니/제라드 슈워츠, 아나 마르티네즈, 소프라노/키스턴 오커룬트, 피아노, BBC 싱어즈/아브너 이타이,
필리스 브란-줄슨, 소프라노/바르셀로나 심포니/호르헤 메스터

MDG New Release (엠데게 신보)

비트 : 관현악 작품집 (교향곡 6, 9번, 플루트협주곡)

수잔 바르너,플루트 / 함부르크 심포니 / 요하네스 뫼수스

잊혀진 고전 작곡가의 감추어진 보석과도 같은 관현악 작품들.
베토벤과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던 독일의 작곡가 프리드리히 비트. 음반에 수록된 그의 두 교향곡은 베토벤의 중기 작품들에 필적하는 당당한 스케일과 높은 완성도의 작품구조를 보여준다. 적극 추천반.

MDG 329 1299-2

텔레만 : 서곡, 소나타, 협주곡

무지카 알타 리파

'중독 될 가능성이 높은 음반' (포노포럼)
이번 신보에 수록된 텔레만의 협주곡, 서곡, 소나타들은 작곡가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왕성한 청조적인 재능을 잘 보여준다. 텔레만이 한때 섬겼던 소라우의 백작은 프랑스풍의 음악들을 선호하였다. 텔레만은 프랑스모음곡과 같은 장르를 적극 받아들였고 2년 동안 무려 200여 편에 가까운 작품을 양산하였다.

MDG 309 1314

브루크너 교향곡 7번 (실내악 버전)

토마스 크리스티안 앙상블

"편성은 축소되었으나 감동의 강도는 변함없다.
브루크너의 원대한 소우주를 살롱오케스트라 편성으로 축소시킨 장본인들은 쇤베르크의 제자들인 아이슬러, 랑클, 그리고 슈타인. 편곡이 가져오는 효과는 기대이상이다. 작곡가 특유의 장중한 오르간사운드는 사라졌으나 신비한 화성과 풍성한 선율들의 어울림은 선명하게 부각된다. 한풀 중량을 줄였으나 풍겨 나오는 장대한 아우라는 여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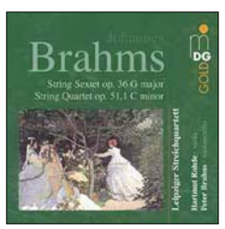
MDG 603 1313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7번 '레닌그라드'

로만 코프만, 지휘 / 본 베토벤 오케스트라

"2차대전의 참혹한 한 순간이 고해상도의 녹음으로 재현되다.
본 베토벤 오케스트라는 3차원의 소리의 캔버스에 전쟁의 참상을 입체적으로 그려나간다. 키에프 출신의 거장 로만 코프만의 통찰력이 작품의 드라마틱한 본성을 효과적으로 살려내었다."

MDG 337 1203



브람스 현악육중주 Op.36, 현악사중주 Op.51-1

하트무트 로데, 비올라/페터 브룬스, 첼로/라이프치히 현악사중주단

Classicstoday 10/10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브람스.' (Classic CD)
작곡가의 가장 인기 있는 실내악들인 두 곡의 현악육중주에서 저명한 연주가들인 비올리스트 하트무트 로데, 첼리스트 페터 브룬스와 호흡을 맞추었다.

MDG 307 1281

Proprius New Release (프로프리우스 신보)

합창강국 스웨덴의 국보급 합창지휘자 에릭 에릭슨이 바흐의 4대 걸작을 완결하였습니다. 프로프리우스 특유의 선명한 녹음과 대가의 훌륭한 해석이 완벽하게 결합된 이 음반들을 자신 있게 소개합니다.

"스웨덴의 위대한 합창 지휘자인 에릭 에릭슨은 바흐의 종교합창곡 4대 걸작을 1990년대 초반에 녹음하였다. 이들은 모두 실황을 담은 것으로 완벽한 어쿠스틱을 자랑하는 홀의 하나인 스톡홀름의 베르발트 홀에서 연주된 것들이다. 에릭 에릭슨이라는 이름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을 위해 이 음반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헤레베헤의 연주가보다 확장된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이다. 에릭 에릭슨 합창단은 전형적인 시대악기 연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편성으로 요한과 마태 두 수난곡에서 각 성부의 인원은 각각 10/8/8/8과 11/9/9/9이다. (BIS의 bestseller인 비발디의 사계로 우리에게도 친숙한 단체인) 드로트닝홀름 바로크 앙상블의 단원은 요한에서는 25명, 마태에서는 34명이 동원되었다. 베르발트 홀이 자랑하는 천연의 멋진 어쿠스틱에 녹음진의 효과적인 작업이 더해진 사운드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훌륭하다. 각각 요한과 마태 두 수난곡의 복음사가를 나누어 맡은 하워드 크룩과 조셉 콘월을 비롯하여 바바라 보니, 모니카 그룹, 크리스티안 윌체 등등 이 분야의 빛나는 스타들이 동원된 솔리스트들은 전반적으로 훌륭하다. 연주는 깜짝 놀랄만하다. 아직 충분히 들은 것은 아니나 이 바닥의 프리미어 리그 수준의 연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나는 어디선가 스웨덴에서의 합창활동은 국민적인 여가선용이며,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클럽에서 활동하는 이상으로 각종 합창단들에서 노래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에릭슨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앙상블을 들으니 그 이야기가 정말 사실임을 확실히 믿게 되었다. 프로프리우스에 대한 한 마디는 다음과 같다. 당신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에릭슨의 연주를 즐겨보시라."

Ehud Shiloni (www.bach-cantatas.com, 2002/07-02)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크리스티안 윌체, 소프라노/모니카 그룹, 알토/하워드 크룩, 테너/군나르 룬드베리, 베이스/에릭 에릭슨 체임버 콰이어/드로트닝홀름 바로크 앙상블/에릭 에릭슨

PRCD 2012(2CD)

미사 B단조

바바라 보니, 소프라노/모니카 그룹, 알토/클라스 헤드룬트, 테너/군나르 룬드베리, 베이스/에릭 에릭슨 체임버 콰이어/드로트닝홀름 바로크 앙상블/에릭 에릭슨

PRCD 2014(2CD)

요한수난곡

하워드 크룩, 복음사가/토마스 란더, 예수/크리스티나 회그만, 소프라노/모니카 그룹, 알토/군나르 룬드베리, 베이스/에릭 에릭슨 체임버 콰이어/드로트닝홀름 바로크 앙상블/에릭 에릭슨

PRCD 2016(2CD)

마태수난곡

조셉 콘월, 복음사가/칼 마그누스 프레드릭손, 예수/크리스티나 회그만, 소프라노/모니카 그룹, 알토/클라스 헤드룬트, 테너/군나르 룬드베리, 베이스/에릭 에릭슨 체임버 콰이어/드로트닝홀름 바로크 앙상블/에릭 에릭슨

PRCD 2018(3CD)

숨겨진 북유럽 재즈의 보석 Prophone 레이블 국내 본격 수입 !!!

Prophone Jazz Vocal Best Title (프로폰 재즈 보컬)

Carin Lundin : Songs that we all recognize

얼마 전 일본에서 커다란 사랑을 받았던 스웨덴의 간판 재즈 보컬리스트 카린 룬딘의 2005년 신작!프로폰에서 두번째 앨범을 발표하는 그녀는 피아니스트 얀 룬드그렌이 이끄는 트리오와 함께 대중들에게 친숙한 스탠다드를 노래하였다. 깔끔하면서도 이지적이며 우아한 분위기를 풍기는 카린 룬딘와 보이스와 서정성과 스윙감을 적절하게 조화한 얀 룬드그렌의 피아노연주가 최상의 결합을 이루어낸 수작! 담백하면서도 강한 호소력을 담아낸 'I' ll Be Around' 는 북유럽 재즈의 진수로 강력 추천곡!

PCD 078

Jeanette lindstrom Steve Dobrogosz : Feathers

스웨덴 재즈의 수준을 확인시켜주는 피아노와 보컬의 놀라운 듀엣 걸작. 스웨덴의 다이안 리브스이라 불리는 자넷 린드스트롬과 스웨덴의 대표적인 피아니스트 스티브 도브로고스가 만났다. 'The Look Of Love' 'Moon River' 'Both Sides , Now' 등 우리 귀에 익숙한 스탠더드를 HDCD의 고음질로 생생히 기록하고 있다. 여유, 담백, 청순함을 만끽할 수 있는 프로폰 레이블의 대표작.

PCD 053

Rigmor Gustafsson Quintet : Plan #46

현재 ACT 레이블의 간판 보컬리스트로 유럽 재즈계의 스타로 발돋움한 릭모어 구스타프손이 1998년 프로폰에서 발표했던 생애 두번째 솔로작이자 오늘날까지 그녀의 최고작이라 불리는 바로 그 앨범. 공연 때마다 즐겨 노래한다는 'Prelude To A Kiss' 'Bluesette' 를 비롯하여 대표적인 오리지널 'Plan #46' 'Love Is A Little Late'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탁월한 테크닉, 섬세하면서도 원숙한 감정 표현으로 대표되는 릭모어 구스타프손의 진면목이 이 한 장의 앨범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나윤선을 좋아하는 이들에게 적극 추천!

PCD 044

Johanna Grussner : No more blu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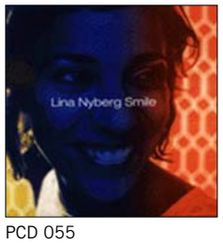
뉴욕 보이시스, 제인 모네이트, 안토니오 산체스 등과 활동했던 핀란드 출신의 재즈 보컬리스트 요한나 그루스너의 프로폰 데뷔작. 이지적이며 섬세한 보이스로 보사노바와 팝 그리고 재즈 스탠다드를 넘나드는 다양한 레파토리를 담은 이번 앨범으로 그녀는 스웨덴은 물론 일본과 뉴욕 재즈계의 커다란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얇은 듯하면서도 짙은 호소력을 지닌 그녀의 목소리는 북유럽 재즈 보컬의 한 전형을 보여주는 듯하지만 들을수록 귀에 감기는 강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PCD 073

Sofia Pettersson : Slow Down

여성 재즈 보컬리스트가 많기로 유명한 프로폰 레이블에서도 가장 대중적인 보컬 앨범이라면 단연 소피아 페테르손의 본작을 꼽을 수 있다. 폴 사이몬, 프린스, 네오나드 코헨, 버트 바카락 등의 익숙한 팝 스탠더드들을 블러섬 디어리를 연상시키는 그녀의 너무나 깜찍한 목소리로 만날 수 있다. 상큼하고 귀여운 음악을 찾는 이들에게 강력추천!!! 'Can' t Take My Eyes Off You' 수록.

PCD 066



Lina Nyberg : Smile

일찍이 스웨덴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 에스뵈른 스벤손과 함께 활동하며 스웨덴 재즈 보컬의 기대주로 떠오른 리나 니베이의 6번째 앨범으로 동명의 타이틀곡 'Smile' 을 비롯하여 'Body & Soul' 'Wild Is The Wind' 의 스탠다드에서 비틀즈의 'Golden Slumbers' 까지 듀오, 트리오, 그리고 스트링과의 협연을 통해 북유럽 재즈 보컬의 독특한 매력을 선보이고 있다. 리나 니베이 음악 중 가장 감미롭고 따뜻한 강력 추천 앨범.

PCD 055

Prophone Jazz Instrumental Best Title (프로폰 재즈 연주)

Karl-Martin Almqvist : Karl- Martin Alqvist

놀라운 발견! 프로폰 레이블이 자신 있게 선보이는 비범한 재능을 지닌 테너 색소포니스트, 칼 마틴 알름크비스트. 존 콜트레인의 영향 위에서 미국의 포스트밥을 훌륭하게 소화해낸 북유럽의 최고의 명연으로 기록될 만하다. 특히 한 곡을 뺀 전곡을 직접 작곡할 정도로 훌륭한 작곡 솜씨와 란 룬드그랜을 위시한 쿼텟의 연주는 뉴욕의 재즈 뮤지션과 비교해도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PCD 057

Peter Asplund Quartet : Lochiel' s Warning

현재 스웨덴 재즈계를 대표하는 트럼펫터로 각광을 받고 있는 피터 아스플룬드의 데뷔작! 피아니스트 야콥 칼존, 테너 색소포니스트 칼 마틴 알름크비스트와 활동하며 스웨덴 재즈계의 총아로 인정받는 그는 여기서 스탠다드에 대한 서정적인 해석과 자신의 뛰어난 작곡 실력을 선보이고 있다. 미국의 흑인 트럼펫터처럼 격렬하게 스윙하지는 않지만 탐 하렐을 연상시키는 그의 쿨하면서 이지적인 즉흥연주는 들으면 뇌리 속에 깊은 잔향으로 남아있을 듯하다.

PCD 071

Jacob Karlzon : Big 5

스웨덴 재즈계에 놀라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던 야콥 칼존의 2003년작. 스웨덴 재즈계의 영 라이언이라 불리는 최고의 젊은 뮤지션들 – 색소포니스트 칼 마틴 알름크비스트, 트럼펫터 페테르 아스플룬드 그리고 자신이 이끄는 야콥 칼존 트리오가 참여한 스웨덴 재즈 올스탄 퀸텟의 놀라운 품! 모든 곡을 작편곡할 만큼 야콥 칼존의 빼어난 역량이 총집결된 이 작품은 북유럽 재즈의 강국 덴마크에 비견될 만한 스웨덴 재즈계의 현주소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유러피안 재즈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스웨덴 재즈의 최고작 중의 하나!!!

PCD 069

Maggi Olin Band : Live at Fagching

마리아 슈나이더가 극찬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럽을 넘어 미국의 재즈 매체의 호평을 이끌어낸 매기 올린의 출세작. 2001년 스톡홀름의 재즈 클럽 Fasching에서 열린 라이브 실황을 기록한 이 앨범은 한스 울릭 대신에 칼 마틴 알름크비스트가 참여한 현 매기 올린 밴드의 멤버들이 참여하였다. 특히 색소폰과 트럼펫의 자연스러운 솔로 진행 그리고 베이스와 드럼의 변화무쌍한 리듬 라인들이 매기 올린 작품의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다. 미국의 진보적인 포스트 밥에 버금가는 유럽 재즈의 수작 탄생!

PCD 063

Tolvan Big Band : A walk in The centerpoint

낙소스 레이블을 통해 국내에 소개되었던 톨반 빅 밴드의 최신작! 빌리 코뱀의 극찬하여 직접 해설지를 썼을 정도로 다시 한번 이들의 유럽 빅밴드 최고봉다운 연주를 들려준다. 특히 새로 합류한 피아니스트 야콥 칼존을 중심으로 신구의 조화를 이루었는데 톨반이 자랑하는 밀집된 사운드와 솔로 연주자들의 탄탄한 연주는 컨템포러리 빅밴드의 매력을 여실히 보여준다.

PCD 067

Prophone Jazz Other Vocal Title (그 외 보컬 앨범)

Sogia Pettersson : That's amore

따사한 봄 햇살처럼 발랄하고 감미로운 목소리 그리고 대중적인 선곡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데 프로폰의 간판 보컬리스트 소피아 페테르손이 다시 한번 팝과 재즈를 넘나드는 매력적인 음악을 선보인다. 폴 사이먼의 'Nobody' 비틀즈의 'Fool On The Hill' 이 예띤 그녀의 목소리로 새롭게 태어나는가 하면 자작곡에서는 섬세한 멜로디 메이커로서의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

PCD 074

Lina Nyberg / Esbjorn svensson : Clo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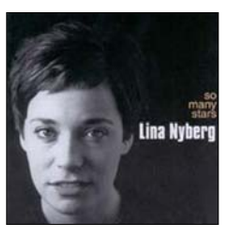
스웨덴의 프로폰 레이블을 대표하는 보컬리스트 리나 니베이의 데뷔작으로 현재 유럽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피아니스트 에스뵈른 스벤손와의 피아노?보컬 듀엣 작품! 'Never Let Me Go' 'In Your Own Sweet Way' 에서 비틀즈의 'Here, There And Everywhere' 까지 너무나 아름다운 발라드로 가득 차 있다. 이 작품으로 그녀는 단숨에 스웨덴 최고의 재즈 보컬리스로 등극하였다.

PCD 018

Lina Nyberg Quintet : When the smile shines through

1995년 스웨덴 재즈 그래미를 수상한 리나 니베이의 출세작! 에스뵈른 스벤손이 이끄는 트리오 그리고 페르 텍사스 요한손의 색소폰이 참여하였다. 'All Blues' 'Love For Sale' 'Blackbird' 와 같은 스탠다드는 물론 멤버들의 오리지널이 수록되어 있는데 마치 하나의 악기처럼 목소리를 활용하는 그녀의 빼어난 능력 그리고 진부적이지 않고 창조적인 상상력이 단연 돋보이는 작품!

PCD 023



Lina Nyberg : So many stars

1996년 프레드릭 리융크비스트, 앤더스 페르손 등 서정성과 실험성을 동시에 지닌 뮤지션들과 함께 발표한 리나 니베이의 세번째 작품. 이번 앨범은 기존의 스탠다드에서 보사 노바 그리고 자작곡에 이르기까지 보다 다양한 레파토리를 담고 있다. 특히 스트링 쿼텟마저 참여하여 기존 두 장의 앨범보다 풍부해진 그녀의 음악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PCD 030

Lina Nyberg Jacob Karlzon : Temper

〈Close〉의 성공에 힘입어 리나 니베이는 다시 한번 보컬과 피아노와의 듀엣작을 발표한다. 현재 스웨덴의 주목받는 피아니스트이자 톨반 빅밴드의 멤버이기도 한 야콥 칼존과 함께 그녀는 'It Might As Well Be Spring' 'Embraceable You' 와 같은 너무나도 따뜻한 발라드 작품을 노래하였다.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앙상블의 만남. 게다가 뛰어난 녹음은 오디오마니아들에게 환영받을 듯.

PCD 038

Lina Nyberg : Open

일찍이 스웨덴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 에스뵈른 스벤손과 함께 활동하며 스웨덴 재즈 보컬의 기대주로 떠오른 리나 니베이의 앨범 중에서도 실험성이 가장 돋보이는 작품. 여기서 그녀는 작편곡 실력을 과시하고 있는데 팔레 다니엘손, 프레드릭 리융크비스트, 조아킴 밀러와 같은 진보적인 뮤지션들이 동참하고 있다. 우리 귀에 친숙한 'The Nearness Of You' 와 조빔의 'Photograph' 의 새로운 해석은 이번 앨범의 진정한 매력일 것이다.

PCD 042

Lina Nyberg : Brasilien

스웨덴 음악과 브라질 음악이 만났을 때.!지금까지 접할 수 없었던 브라질 음악의 또 다른 매력이 북유럽의 아름다운 정서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다. 프로폰 레이블을 대표하는 여성 재즈보컬리스트 리나 니베리의 최신작.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 카에타누 벨로수, 조이스, 밑톤 나시멘투 등 브라질을 대표하는 거장들의 작품을 스웨덴어로 새롭게 노래하였다. 여름용 음악으로 강추!!!

PCD 061

Lina Nyberg : Time

"일찍이 스웨덴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 에스뵈른 스벤손과 함께 활동하며 스웨덴 재즈 보컬의 기대주로 떠오른 리나 니베이의 8번째 앨범이자 그녀의 음악활동 10주년을 기념하는 회심의 역작. 그녀의 새로운 밴드 플링과 함께 자작곡을 기반으로 그녀의 숨겨진 작편곡 솜씨를 선보인다. 또한 전작 〈Brasilien〉에 이어 다시 한번 브라질과 퓨전음악에 대한 관심을 유감없이 표출해내고 있다.

PCD 070

Carin Lundin : From dusk to dawn

스웨덴을 대표하는 재즈 싱어송라이터 카린 룬딘이 1997년 프로폰 레이블을 통해서 발표했던 초창기 화제작. 최근 시텔 레이블을 통해 소개되었던 〈Babble〉 앨범과는 달리 빅밴드 편성에 전자 악기를 도입하여 퓨전 스타일의 음악을 선보이고 있다. 3대 디바로 대표되는 미국 재즈 보컬리스트와는 달리 깔끔하면서도 이지적이며 우아한 분위기를 풍기는 전형적인 북유럽 재즈 보컬.

PCD 032

Rigmor Gustafsson Quintet : In the light of Day

최근 닐스 란드그랜의 배려로 ACT 레이블에서 데뷔작 〈I Will Wait For You〉를 발표하여 화제를 불러 일으켰던 릭모어 구스타프손이 고국 스웨덴에서 발표했던 솔로 데뷔작으로 초악기 그녀의 진정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역작. 오늘날 스웨덴을 대표하는 여성 보컬리스트답게 'Very Early' 'Bye Bye Blackbird'에서 자작곡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감정과 개성적인 해석을 들려주고 있다.

PCD 034

Rigmor Gustafsson : Live

칼-마틴 알름크비스트, 야콥 칼존 등 스웨덴의 대표적인 뮤지션들과 함께 가졌던 릭모어 구스타프손의 라이브 실황음반. 이 음반은 한마디로 그녀의 파워풀하면서도 역동적인 가창력의 진수를 담고 있는 작품이다. 우리 귀에 친숙한 'Over The Rainbow' 'All The Things You Are' 등이 수록되어 있지만 멜로디의 전달에 치중하기 보다는 다양한 테크닉과 섬세한 표현력을 통해 스탠다드의 재해석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또한 자신의 오리지널의 경우 창조적인 표현력이 단연 돋보이는데 유러피안 재즈 보컬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적극 추천작!

PCD 054

Rigmor Gustafsson : Ballad collection The prophone years

릭모어 구스타프손의 ACT 레이블 이적 후 프로폰 레이블이 내놓은 그녀의 첫 발라드 베스트 앨범. 'Prelude To A Kiss' 'Love Is A Little Late' 'All The Things You Are' 'Over The Rainbow' 'Goodbye Pork Pie Hat' 등 섬세하고 원숙한 표현력 그리고 탁월한 테크닉이 돋보이는 작품들로 가득 차 있다. 릭모어 구스타프손 그리고 유러피안 재즈 보컬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 맨 처음 권하고 싶은 입문용 앨범!

PCD 080

Alice Babs : Yesterday

15살때부터 프로뮤지션으로 활동하며 듀크 엘링턴의 총애를 받았던 스웨덴의 전설적인 재즈디바 앨리스 밥스! 1966년~1975년 사이 그녀가 발표했던 노래 중에서 14곡을 엄선하여 이 한장의 음반에 담았다. 재즈에서 팝 그리고 클래식에서 포크까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원숙하면서도 청순한 목소리를 만나게 된다. 특히 비틀즈의 'Yesterday' 카펜터스의 'Close To You' 듀크 엘링턴의 'It Don't Mean A Thing'은 강력 추천곡!

PCD 050

How many sisters : Stolen Monments

3인조 핀란드 여성 재즈 보컬그룹 How Many sisters의 프로폰 데뷔작! 이미 핀란드는 물론 스위스, 독일 중에서 커다란 주목을 받고 있는 이들은 자국의 UMO 재즈 오케스트라의 반주에 맞춰 'It's Only A Paper Moon' 'Cheek To Cheek' 'In A Sentimental Mood' 등 우리 귀에 친숙한 재즈 스탠다드를 노래하고 있다. 빅밴드의 흥겨운 스윙감 위로 3명의 개성적인 보컬이 어우러진 신선하고 유쾌한 재즈 파티! 맨하탄 트랜스퍼, 뉴욕 보이시스와 같은 보컬 앙상블을 좋아하는 이들에게 강력 추천작!

PCD 064

Prophone Jazz Other Instrumental Title (그 외 연주 앨범)

Lars Erstand : Live in Japan – Kobe Jazz street 2001

Jazz At The Pawnshop 시리즈에 참여하였던 스웨덴의 전설적인 비브라포니스트, 라스 에르스트란드의 최신작으로 2001년 일본의 재즈 페스티발과 재즈 클럽 공연 등 각기 다른 날짜와 장소에서 벌어진 세가지 공연 실황을 담고 있다. 밴드의 구성은 다소 변화가 있지만 다분히 Jazz At The Pawnshop을 염두에 둔 퀸텟 혹은 쿼텟 형식이 대부분이다. 특히 일본출신의 클라리넷 연주는 비브라폰과 어우러져 한동안 잊고 있던 스윙 재즈의 참맛을 일깨워주고 있다. 베니 굿맨 빅밴드의 대표곡으로 유명한 'Moonglow'는 본작의 백미!

PCD 077

Karl-martin almqvist : Full circ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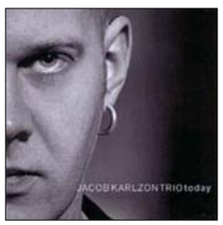
프로폰의 간판 뮤지션이자 스웨덴이 자랑하는 테너 색소포니스트 칼-마틴 알름크비스트의 두번째 작품. 진보적인 성향의 유로피안 포스트 밥 스타일을 선보이는 이번 작품에서 그는 다시 한번 테너 색소폰 본연의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다. 또한 그 탁월한 작곡솜씨로 전율을 선사한다. 핀란드의 조엘 팔손, 덴마크의 한스 울릭 등과 함께 북유럽 재즈계를 이끌 최고의 기대주임에 틀림없다.

PCD 068

Jacob Karlzon Trio : Going place

에스뵈요른 스벤손의 뒤를 이어 현재 스웨덴에서 가장 각광받는 피아니스트, 야콥 칼존의 1998년 프로폰 데뷔작! 익히 리나 니베이와의 듀엣작을 통해 빌 에반스를 연상시키는 탁월한 서정미를 과시했던 그가 매티아스 스벤손(베이스), 페테르 다네모(드럼)와 함께 트리오를 결성하여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연주를 들려준다. E.S.T., 트리오 토이킷에 버금가는 놀라운 피아노 트리오로서 이들의 선보이는 북유럽 특유의 이지적인 서정성과 강인한 힘은 단연 최고라 부를 만하다.

PCD 041



Jajob karzon trio : Today

전작 〈Going Places〉의 성공에 힘입어 2002년 발표한 야콥 칼존 트리오의 두번째 작품. 여기서는 'Nardis' 'Bye, Bye Blackbird' 'In Your Own Sweet Way' 'Round Midnight' 등 우리들에게 친숙한 재즈 스탠다드를 주로 연주하고 있다. 하지만 그의 해석은 기존의 피아니스트들과는 사뭇 다르다. 원곡의 감성만을 고스란히 갖고 와 야콥 칼존 특유의 서정성으로 단백하고 힘입게 재창조하였다. 빌 에반스의 영향을 받았지만 결국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아낸 야콥 칼존의 음악적 정체성을 담아낸 회심의 역작!

PCD 059

Maggi Olin Quartet : land of me

90년 중후반 스웨덴 재즈계의 등장한 매기 올린은 여성 재즈 피아니스트인 동시에 작곡가 그리고 뛰어난 편곡가로 현재 유럽 재즈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특히 그녀는 버클리 유학시절 탁월한 작편곡 실력으로 잉그리드 엔센과 마리아 슈나이더의 극찬을 받기도 하였다. 1996년에 발표된 그녀의 첫 앨범 〈Land Of Me〉는 한스 울릭, 한스 안데르손, P.A 톨봄으로 구성된 자신의 쿼텟이 참여하고 있는데 12곡의 자작곡을 통해 포스트밥에 기반을 둔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피아니스트로서의 역량보다는 정교한 쿼텟의 연주에 포인트를 둔 작품.

PCD 031

Maggi Olin Sextet : Dreams

1999년에 발표한 매기 올린의 두번째 작품은 기존의 쿼텟에 그녀의 음악 파트너 여성 트럼펫터 잉그리드 엔센이 참여한 퀸텟 구성의 앨범이다. 피아노는 물론, 펜더 로즈, 신디사이저를 이용한 보다 풍부한 음악을 선보이고 있으며 특히 각 솔로이스트들의 즉흥연주를 배려한 작편곡이 단연 돋보인다. 이제는 덴마크 최고의 색소포니스트로 자리매김한 한스 울릭의 거침없는 솔로 그리고 잉그리드 엔센의 열정적인 솔로가 매기 올린의 작품을 더욱 빛내고 있다.

PCD 047

Maggi Olin Band : Le speciali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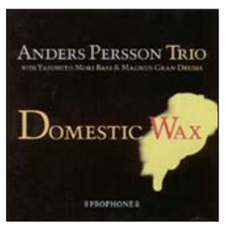
〈Living At Fasching〉을 통해 스웨덴 재즈의 간판 주자로 급부상한 매기 올린의 2005년 신작이자 2004년 스웨덴의 라디오가 수여하는 JAZZKANNAN 수상작! 비록 잉그리드 엔센을 대신하여 매그너스 브루가 트럼펫터로 참여하였지만 칼 마틴 알름크비스트, P-A 톨봄, 매티아스 벨린의 안정적인 라인업은 이제 원숙한 앙상블로 매기 올린의 작품을 소화해내고 있다. 비록 퀸텟 구성이기는 하지만 마리아 슈나이더를 연상시키는 독창적인 편곡과 진행방식은 최고 수준의 유럽 재즈를 선사할 것이다.

PCD 079

Karin Hammar Good vide project : With friends

재즈, 팝, 라틴을 넘나들며 다양한 세션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여성 트롬보니스트 카린 함마르의 솔로 데뷔작! 그녀의 자작곡을 중심으로 플룻, 비브라폰, 트럼본, 베이스, 드럼의 퀸텟 구성을 취하고 있는데 비슷한 구성의 데이브 홀랜드 퀴텟의 음악을 연상시킨다. 특히 트럼본과 베이스 라인이 구성하는 저음부과 이와 대조적인 비브라폰의 솔로 카린 함마르의 비범한 작곡실력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닐스 란드그렌의 뒤를 이어 스웨덴 재즈계를 이끌어갈 주목할만한 트럼보니스트임이 분명하다.

PCD 075



Anders persson trio : Domestic wax

이 음반이 발매되었을 때 스웨덴 재즈계에서는 "사랑에 빠지기 쉬운 음반"이라며 앤더스 페르손 트리오의 감각적이며 서정적인 연주를 극찬하였다. 그는 야콥 칼존과 함께 스웨덴 재즈계의 기대주로 손꼽히고 있는데 빌 에반스와 스칸디나비아의 서정성이 만났으며 여기에 그만의 위트와 상상력이 가미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Falling In Love Again'은 매력만점의 강력 추천곡!

PCD 049

Concord Jazz New Release (콩코드 재즈 신보)

리 릿나워 : OverTime

현존하는 최고의 컨템포러리 재즈 기타리스트이자 GRP 레이블을 통해 다수의 프로젝트 앨범을 발표하던 리 릿나워의 피크 레이블 데뷔작! 데이브 그루신, 크리스 보티, 이반 린스, 하비 메이슨, 에릭 마리엔탈, 안소니 잭슨 등 초호화 세션이 참여한 이번 앨범은 70년대부터 현재에까지 리 릿나워가 걸어온 음악 여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스튜디오 라이브로 제작되었다. 유명한 재즈 스탠다드 'Blue In Green'에서 그의 대표곡 'Captain Fingers' 그리고 모타운 프로젝트에 수록되었던 'Papa Was A Rollin Stone'에 이르기까지 리 릿나워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회심의 역작! 리 릿나워 그리고 컨템포러리 재즈팬들이라면 결코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PKD 85312

게리 버튼 : Next Generation

차세대 유망주들로 구성된 새로운 게리 버튼 그룹의 출현.
언제나 새로운 젊은 연주자들과 함께 연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로부터 새로운 음악적 영감을 받아들이는 게리 버튼. 그가 오랜만에 신예들로 구성된 그룹을 이끌고 새로운 녹음을 했다. 지난 〈Generation〉앨범을 통해 발굴했던 17세의 어린 기타 연주자 줄리안 라지를 비롯하여 게리 버튼이 직접 발굴한 차세대 유망주들로 이루어진 이번 앨범은 젊은 활기와 싱그러운 감성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 특히 신예임에도 불구하고 게리 버튼과 호흡을 맞추어 나가는 젊은 연주자들의 탄탄하고 원숙한 그룹 연주는 90년대 초반 이후 사라진 게리 버튼 그룹의 전통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CCD 2277

다이안 슈어 : Schuur Fire

다이안 슈어 라틴 리듬을 노래하다. 블루스, 스윙, 푸전 재즈 등 다양한 재즈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노래해 온 다이안 슈어의 새로운 도전을 담고 있는 앨범. 비브라폰 연주자 데이브 사무엘스가 이끄는 캐리비언 재즈 프로젝트를 초빙하여 뜨겁고 현란한 라틴 리듬을 배경으로 다양한 곡들을 노래한다. 그 가운데 얼마 전 세상을 타계한 레이 찰스의 히트 곡 "I Can't Stop Loving You"가 달콤한 보사 노바 버전으로, 뉴 웨이브 그룹 듀란 듀란의 히트 곡 "Ordinary World"가 상쾌한 라틴 버전으로 노래되고 있는 것이 특이하게 다가온다. 이 외에도 "So In Love", "Lover Come Back To Me", "Look Around"등의; 스탠더드 곡이 색다르게 해석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움 속에서도 다이안 슈어의 깊이 있는 보컬 음색은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으로 빛을 발하고 있다.

CCD 2264

쉘리 버그 트리오 : Blackbi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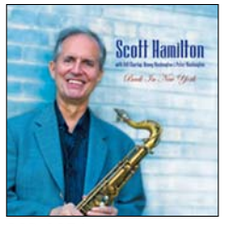
국제 재즈 교육협회 회장으로 재즈 연주자를 양성하는데 힘쓰느라 상대적으로 앨범 활동이 적어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스탠더드를 해석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지닌 피아노 연주자 쉘리 버그의 4번째 앨범. 척 베르고호퍼(베이스) 그렉 필드(드럼)과 함께 트리오로 녹음한 이번 앨범에서 쉘리 버그는 익숙한 스탠더드 곡 외에 비틀즈의 "Blackbird", 스티비 원더의 "Blame It On The Sun", 빌리 조엘의 "She's Always Woman" 그리고 팻 메스니의 "Question & Answer"를 전통적인 피아노 트리오 양식으로 연주하며 새로운 레퍼토리를 확장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CCD 2216

마리안 맥파틀랜드 & 프랜즈 : 85 Candles-Live In New York

화려한 85세 생일 잔치. 1928년 생으로 복고적인 성향의 연주를 들려주었던 여성 피아노 연주자 마리안 맥파트랜드의 85세 생일을 위해 콩코드 레코드사가 기획한 특별한 공연을 기록한 앨범. 2003년 3월 21일 버드랜드에서 있었던 이날 축하 공연에는 노라 존스, 캐린 앨리손, 레지나 카터, 빌 찰랩, 데이브 더글라스, 로이 하그로브, 짐 홀 등 모두 현재 재즈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참여하여 마리안 맥파트랜드와 즐거운 협연을 펼쳤다. 그리고 그 연주들은 모두 순도 높은 재즈의 참 맛을 전달한다. 한 노장의 생일을 위한 공연을 넘어 스타일을 초월한 재즈인들의 축제였던 이 공연 실황이야말로 현대 재즈의 메인스트림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CCD 2218



스캇 해밀턴 : Back in New Y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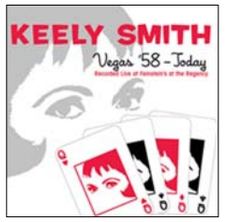
콩코드 재즈가 자랑하는 우리 시대 최고의 로맨틱 색소포니스트, 스캇 해밀턴! 그가 마침내 재즈의 메카 뉴욕으로 돌아왔다. 특히 현재 블루노트의 간판 피아니스트 빌 찰랩이 이끄는 정규 트리오가 합류하여 그의 금의환향을 축하하고 있다. 덱스터 고든, 벤 웹스터를 연상시키는 스캇 해밀턴 특유의 텁텁하면서도 부드러운 색소폰 톤을 만끽할 수 있는 이번 앨범은 피아노 트리오 + 색소폰 구성이 빚어낼 수 있는 로맨티시즘의 정점을 보여준다. 오프닝곡 'What Is This Thing Called Love'의 흥겨운 스윙감에서 'Love Letters'와 'This Is Always'의 서정성까지 정통 재즈 마니아들에게 결코 잊혀지지 않을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CCD 2274

조이 드프란체스코 & 지미 스미스 : Legacy

신구 대표 오르간 연주자의 흥겹고 따스한 만남.
오르간 연주자 조이 디프란시스코가 이번에는 스윙감 넘치는 흥겨운 그루브로 60년대 최정상의 인기를 누렸던 선배 오르간 연주자 지미 스미스를 초빙했다. 지난 2005년 2월 15일 지미 스미스가 세상을 떠나기 6개월 전에 녹음된 것이라 그 의미가 더한데 나이에도 불구하고 흥겨운 스윙감을 잃지 않는 지미 스미스와 그에 대해 경의를 표하는 조이 디프란시스코. 특히 지미 스미스는 젊은 시절 자주 연주했던"I ve Got Mojo Workin"에서 시원하게 노래까지 하고 있어 이채롭다.

CCD 22292



킬리 스미스 : Las Vegas 58 ~ Today

킬리 스미스 라스 베가스를 추억하다.
킬리 스미스는 "Just a Gigolo/I Ain't Got Nobody"로 잘 알려진 루이스 프리마의 아내로 프리마와 함께 듀엣으로 노래하며 50년대 라스 베가스 무대의 최고 스타로 인기를 누렸던 백인 여성 보컬이다. 킬리 스미스는 뉴욕의 파인스타인 앳 더 리젠시 실황에서 자신의 라스 베가스 솔로 활동을 흐뭇한 시선으로 추억하고 있다. 그녀의 첫 솔로 앨범에 실려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던 "I Wish You Love"를 오프닝과 엔딩으로 연주하며 그 외 18곡의 킬리 스미스의 애청곡이 담겨 있다.

CCD 2266

데비 분 : Reflections Of Rosemary

시어머니 로즈마리 클루니에 대한 데비 분의 회상.
많은 사람들의 애청, 애창곡 가운데 하나인 팝 명곡"You Light Up My Life"의 주인공 데비 분이 그녀의 시어머니자 팝과 재즈를 오가며 부드럽고 깊이 있는 목소리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백인 여성 보컬 로즈마리 클루니를 회상하고 있는 앨범. 이 앨범에서 데비 분은 처음 발매하는 재즈 보컬 앨범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완숙한 창법과 감미로운 미성으로 로즈 마리 클루니의 전성기를 개인의 정서적인 측면에서 차분하게 재현해 낸다. 백인 여성 보컬의 부드러움을 좋아하는 애호가들에게 만족을 줄만한 앨범.

CCD 2285

커티스 스타이거 : I Think It's Going To Rain To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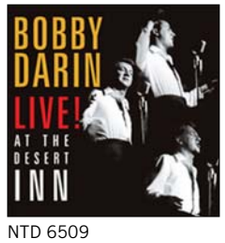
스탠더드를 넘어선 커티스 스타이거의 새 앨범.
2000년대부터 재즈를 노래하기 시작한 싱어송라이터 커티스 스타이거의 2005년도 신보. 래리 골딩(피아노, 오르간), 벤 앨리슨(베이스), 미트 맥켄(기타) 등 최고의 연주자들과 함께 녹음. 이번 앨범에서는 타이틀곡 랜디 뉴먼의"I Think It's Going To Rain Today"를 비롯하여 톰 웨이츠의 "In Between Love", 윌리 넬슨의 "Crazy"등 현대의 대표적 싱어송라이터들의 곡들의 비중을 높여 앨범에 보다 더 신선한 분위기를 부여했다.

CCD 2275

Marian McPartland's Piano Jazz with Guest : Steely Dan

스틸리 댄과 마리안 맥파트랜드의 정겨운 만남. 노장 피아노 연주자 마리안 맥파트랜드는 1978년부터 미국 공영 라디오 NPR에서 "피아노 재즈"라는 재즈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유명 재즈 연주자들을 초빙해 이야기를 나누고 마리안 맥파트랜드와 협연을 하는 것으로 채워지는데 이 프로그램은 꾸준히 음반으로 발매되고 있다. 그 중 이 앨범은 그 프로그램 가운데서 재즈적 색채가 강한 어번 팝 음악을 들려주었던 스틸리 댄의 출연분을 수록하고 있다. 스틸리 댄의 음악에 관한 마리안 맥파트랜드와 스틸리 댄의 대화와 협연으로 이루어진 앨범에서 스틸리 댄은 듀크 엘링턴의 "Mood Indigo"를 연주하는 한편 자신들의 대표곡 "Josie", "Black Friday"등을 연주한다.

TJA 120482



바비 다린 : Live! At The Desert Inn

CD로 새롭게 만나는 바비 다린의 공연 실황.
백인이면서 흑인적 색채가 강한 노래로 70년대를 풍미했던 스탠더드 팝 가수 바비 다린. 그의 1971년 미국 라스 베가스의 디저트 인에서의 공연 실황은 한동안 절판되어 많은 어덜트 팝 매니아들의 수집 대상 앨범이었다. 따라서 2005년에 새롭게 CD로 발매되어 그동안 이 앨범을 찾았던 매니아들의 갈증을 풀어주리라 생각된다. 이 공연 실황에서 바비 다린은 대형 빅밴드의 반주에 맞추어 "Mack The Knife"부터 비틀즈 메들리, 그리고 자신의 대표적 히트 곡 "Beyond The Sea"등을 노래.

NTD 6509

마리 하스켈 : Inspired: Standards-Good For The Soul

티브이 드라마 배우로도 높은 지명도를 획득하고 있는 마리 하스켈의 첫 앨범으로 그동안 그녀에게 큰 영감을 주었던 곡들 14곡을 수록하고 있다. 풍성한 오케스트라 사운드를 배경으로 재즈와 성인 취향의 팝을 오가는 하스켈의 노래는 미국 백인 여성 보컬의 전형을 다르고 있다. 특히 부드러움에 있어서는 카펜터스의 카렌 카펜터를 성숙한 분위기에 있어서는 로즈마리 클루니를 연상시키는 그녀의 목소리는 낭만적이고 편안한 보컬 음악을 찾는 어덜트 컨템포러리 뮤직을 좋아하는 감상자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갈만한 것이다.

CCD 2273

토니 베넷 : Sings The Rodgers & Hart Songbook

미국 대중음악계 최고의 명콤비 리차드로저스와 로렌즈 하트의 주옥 같은 명곡을 노래한 이 앨범은 특이하게도 피아노가 빠진 채 두 대의 기타, 코넷, 베이스로 구성된 쿼텟이 반주를 맡고 있다.

CCD 2243

리핑턴스 : Wild card

80년대 이래 엘로우 자켓, 스파이로 자이라와 함께 퓨전 재즈계의 3대 밴드로 평가받고 있는 리핑턴스는 기타리스트 러스 프리먼을 중심으로 현재 가장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퓨전 밴드로 유명하다. 이번 신작에서는 스패니쉬, 라틴, 집시 등 월드 음악에 대한 깊은 관심을 담고 있다. 러스 프리먼의 기타 선율과 에릭 마리엔탈의 색소폰 선율이 빚어내는 감미롭고 열정적인 파티에 당신을 초대한다.

PKD 8527

에디 팔미에리 : Listen Here!

에디 팔미에리는 몽크, 허비 행콕,메코이 타이너 등으로 대표되는 재즈 피아노의 전통을 라틴 음악과 가장 완벽하게 결합시킨 라틴 재즈계 최고의 피아니스트로 그래미를 무려 7번이나 수상한 거장이다. 최근 콩코드를 통해 황혼의 전성기를 구가하는 그가 마이클 브레커, 존 스코필드, 크리스찬 맥브라이드, 니콜라스 페이튼, 데이빗 산체스, 레지나 카터 등으로 이루어진 재즈계 올스타와 함께 재즈와 라틴을 뛰어넘는 그만의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 냈다.강력한 타건과 변화무쌍한 리듬, 거장들의 탁월한 솔로가 어우러진 에디 팔미에리 생애 최고의 작품! 2005년 라틴 재즈 강력 추천 앨범!!!

CCD 2276

리타 쿨리지 : And so is love

007 옥토퍼스의 주제가 'All Time High' 그리고 CM송으로 친숙한 'I'd Rather Leave While I'm In Love'의 주인공 리타 쿨리지가 돌아왔다. 새롭게 콩코드와 계약하며 오랫동안 그녀가 품고 지냈던 재즈에 대한 사랑을 이 한 장의 음반에 모두 쏟아 부었다. 'Come Rain Or Come Shine' 'Cry Me A River' 'More Than You Know' 등 너무나도 친숙한 재즈 스탠다드가 허스키하면서도 매혹적인 그녀의 목소리를 통해 팝스타일로 새롭게 태어났다. 유명 팝 가수가 노래한 또 한 장의 뛰어난 팝 재즈 앨범 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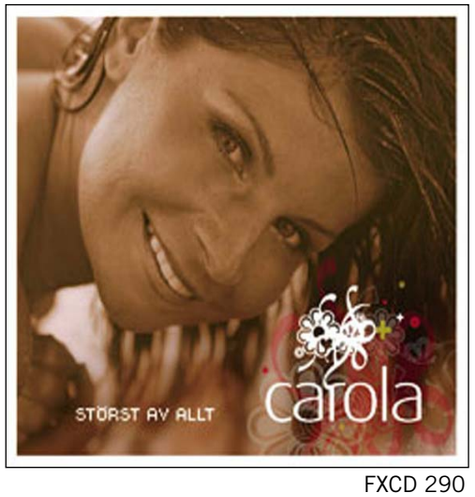
CCD 2271

Jazz After Dark II

늦은 밤! 고요만이 흐르는 적막한 이 시간! 재즈가 있기에 삶이 행복하지 않을까? 사색적인 그러면서도 달콤하고 관능적인 재즈의 매력! 플레이보이와 콩코드 재즈가 준비한 Jazz After Dark 두번째 작품! 소니 롤린스, 마일즈 데이비스, 쳇 베이커, 듀크 엘링턴, 데이브 브루벳, 델로니어스 몽크의 전설적인 연주에서 사라 본, 피터 신코티, 카린 앨리슨, 커티스 스타이거로 이어지는 보컬에까지 재즈의 바다에 푹 빠져들 것이다.

PBD 27518

KKV New Release (힐켈리흐 신보)



FXCD 290

수록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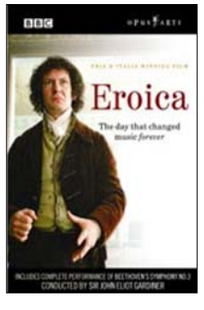
01 Strost av allt (가장 위대한 것)
02 Karleksvals (사랑의 왈츠)
03 Tillagnan (헌정)
04 Barn och stjarnor (아이들과 별들)
05 Hall mitt hjarta (내 마음을 잡아줘)
06 Allting har sin tid (모든 것은 때가 있으니)
07 Gammal fabodpsalm (옛 시편)
08 Over Alven (강을 건너)
09 Mane och sol (달과 해)
10 Jag har hort om en stad ovan molnen (나는 구름 위의 도시를 들었네)
11 Alt kommer bli bra, Mamma (엄마 모두 잘 될 거야)
12 Jag ger dig min morgon (나는 네게 아침을 주네)
13 Den forsta gang jag sag dig (내가 당신을 본 첫 순간)
14 Narmare, Gud, til dig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15 Genom allt (모든 것을 지나)

Carola : Störst av allt (Greatest of All)

인생사를 노래하는 카롤라의 새 앨범 〈Störst av Allt〉 (가장 위대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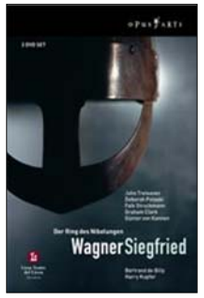
KKV를 통해 〈Blott en dag〉(하루하루, 1998), 〈Jul I Bethlehem〉(베들레헴의 크리스마스, 1999), 〈Sov på min arm〉 (내 품에 잠들라, 2001)로 이어지는 일련의 성공적인 앨범들을 선보였던 카롤라. KKV는 세례, 결혼, 장례와 같은 일생사의 중요한 순간들을 담은 친근한 노래들을 담은 카롤라의 새 앨범으로 성공적인 협력 작업을 이어간다. 가족애, 사랑, 죽음에 대한 노래들은 인생의 중요한 고비나 일상사의 사소한 매순간에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인생의 동반자와도 같은 귀중한 보석이다. 찬송가 364장 '내 주를 가까이하게 함은' 이나 러시아민요 '나는 구름 위의 도시를 들었네' 와 같은 우리 귀에 익숙한 선율들에서부터 자작 신곡들에 이르기까지 카롤라가 만들어내는 진한 감동은 그녀가 얼마나 뛰어난 가수인지를 가감 없이 보여준다. 이전 작품 〈Sov på min arm〉에서도 호흡을 맞추었던 아티스트 Kjetil Bjiekestrand가 수록곡들을 효과적으로 편곡하였고, 노르웨이의 대표적인 오케스트라의 하나인 스타방거 심포니가 반주에 참여하여 품격 높은 연주를 들려준다.

BBC DVD New Release



음악 드라마 〈영웅 교향곡〉 BBC/Opus arte OA0908D

베토벤 영웅교향곡 그 이면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들.
BBC가 제작한 이 음악드라마는 1804년 6월 베토벤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로브코비츠 공작의 저택에서 있었던 영웅교향곡의 비공식 초연을 다루었다. 시민혁명에 대한 베토벤의 생각, 요제피네 브룬스빅과의 안타까운 사랑, 서서히 심해지던 청각장애, 나폴레옹에 대한 애증 등이 절묘하게 드라마 속에 녹아들었다. 영화 '해리 포터'의 퀴렐교수로 낯익은 이안 하트가 자신감 넘치는 젊은 베토벤을 열연하였고, '크리스마스 캐럴', '피아니스트' 등에 출연했던 영국의 대배우 프랑크 핀레이가 하이든 역으로 깜짝 출연한다. 악장 피터 핸슨을 비롯하여 낭만과 혁명 오케스트라 단원들 다수가 극중에서 멋진 연주를 보여주며, 퍼포먼스 메뉴를 통해 이 악단이 연주하는 영웅교향곡 전체를 감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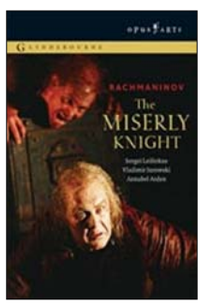


지크프리트 BBC/Opus arte OA0912D

'반지' 연출의 전설, 하리 쿠퍼의 혁명적 프로덕션, 그 세 번째 이야기
하리 쿠퍼의 혁신적 연출로 다시 태어난 반지는 원작의 신화적 의미를 보존하면서도 무대와 의상에 기계적 현대성을 가미하여 충격적인 무대를 선보인다. 〈라인의 황금〉, 〈발퀴레〉에 이른 세 번째 이야기〈지크프리트〉에서도 그런 시각은 유효하며 전체 시리즈를 관통하는 일관성을 치밀하게 유지하고 있다.영웅으로 성장한 지크프리트는 깨어진 부친의 보검 '노퉁'을 복원하고 반지를 지키던 괴물 파프너를단칼에 물리쳐 반지를 차지한다. 이를 통하여 신비한 힘을 얻지만 사실은 반지에게 주어진 저주를 동시에 넘겨받은 것이었다. 지크프리트는 모험을 거듭하여 바위산의 불길을 뚫고 브륀힐데에게 키스함으로써그녀를 긴 잠에서 깨운다. 세계 최고의 첨단시설을 자랑하는 바르셀로나의 리세우 극장의 2004년 6월실황으로 최상의 화질과 음질을 보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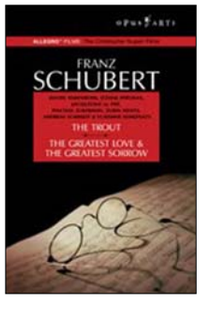
잔니 스키키 BBC/Opus arte OA0918D

가장 사랑스런 아리아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들어있는 오페라
소프라노의 콘서트에는 항상 불려지는 사랑스런 아리아 '오, 나의 사랑스런 아버지'는 푸치니의 단막 오페라 〈잔니 스키키〉중에 나오는 노래이다. 하지만 제목이 풍기는 인상과 달리 이 노래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노래한다기보다는 연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부친에게 애원과 동시에 은근히 위협도 가하는 노래라는 것을 안다면 더욱 흥미로울 것이다. 원래 〈잔니 스키키〉는 〈외투〉, 〈수녀 안젤리카〉와 더불어 하룻밤에 공연되는 '3부작'의 하나였지만 최근에는 독립되어 연주되기도 한다. 인기에 비해서 자료가 많지 않았는데 22년 만에 나온 최신 영상물을 소개한다. 2004년 여름 영국의 글라인드 본 페스티벌 실황으로 현역 최고의 바소 부포로 불리는 알레산드로 코르벨리가 타이틀롤을 맡아 눈부신 희극 연기를 펼친다. 원작은 1299년 피렌체를 무대로 하지만 이를 근대로 바꾼 현실감 있는 연출이다.



인색한 기사 BBC/Opus arte OA0919D

라흐마니노프 오페라의 첫 영상물, 그 놀라운 음악적 풍요로움!
라흐마니노프는 피아노 음악에 있어서 20세기 최고의 대가였지만 한때 볼쇼이 극장의 지휘자를 역임하는 등 오페라에도 관심이 많았고 세 편의 오페라를 남겼다. 〈인색한 기사〉는 절친한 우정을 나누었던 동갑내기 베이스 표도르 샬리아핀을 위해서 볼쇼이 시절인 1906년에 완성한 것이다. 푸쉬킨의 원작에 바탕을 둔 이 작품은 평생 비열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자기가 죽은 다음에 아들이 이 돈을 흥청망청 낭비할까 염려에 빠진 늙은 수전노와 그 아들의 얘기이다. 비정상적인 강박관념이 야기한 터무니없는 비극이 치밀한 구조적 완결성과 풍부한 오케스트레이션으로 뒷받침된다. 2004년 여름 글라인드본 페스티벌 실황이며 러시아의 명바리톤 세르게이 레이페르쿠스가 샬리아핀이 불렀던 인색한 기사 역을 부른다. 러시아 출신으로 글라인드본 페스티벌 음악감독을 맡고 있는 블라디미르 유로프스키가 러시아 오페라의 잊혀진 보석을 찾아냈다.



슈베르트 : 피아노 오중주 〈송어〉 BBC/Opus arte OA CN0903D

우리 애호가들이 가장 기다리고 기다리던 영상물이 아닐까!
다니엘 바렌보임(pf), 이차크 펄먼(vn), 재클린 듀프레(vc), 핀커스 주커만(va), 주빈 메타(bass) 다섯 사람이 모여 연주한 슈베르트의 송어 오중주. 1973년 뮌헨의 TZ-ROSE상 수상작이다. 바렌보임과 듀프레 두 천재 음악가와 지금은 거장의 칭호를 받고 있는 그들의 음악친구들이 함께한 유명한 필름. 보고 또 봐도 감동이 가시지 않는 이 영상물은 LD시대에 이미 접해 본 애호가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 DVD에는 슈베르트의 삶과 예술에 대해 일목요연한 설명을 해주는 미니 슈베르트 전기 〈위대한 사랑, 커다란 슬픔〉까지 담았다. 1994년 프라하의 체코 크리스털 상 수상작인데, '베토벤의 장례식', '슈베르트의 묘비', '슈베르트의 꿈' 등 26개의 주제로 내레이터의 설명과 함께 슈베르트의 감동적인 음악이 가슴 깊이 스미게 만들었다. 감히 우리나라 음악애호가들이 가장 좋아할만한 영상물이라고 단언한다.

TDK DVD New Release

라 페니체 대극장 재개관 기념 갈라 콘서트 TDK DVD DVW-CORL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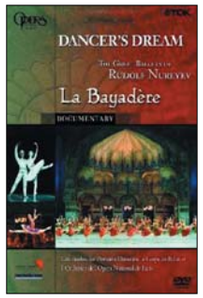
1792년에 세워진 라 페니체 대극장은 물의 도시 베네치아의 음악적 자존심과도 같은 존재이다. 이 극장은 1836년과 1996년에 두 번이나 화재로 소실되는 비운을 겪었다. 두 번째 화재 이후 7년간의 공사기간을 거친 뒤 이 극장은 보다 화려한 모습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2003년 12월 14일 이탈리아 대통령 카를로 치암피의 참석아래 열렸던 재개관 기념 콘서트가 바로 이 DVD에 고스란히 수록되었다. 이탈리아의 자랑과도 같은 거장 리카르도 무티가 라 페니체 대극장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을 이끈 이 연주회에는 재개관 콘서트의 취지에 안성맞춤과도 같은 작품인 베토벤의 '헌당식 서곡'을 시작으로 베네치아에서 태어난 작곡가(칼다라), 이 도시에서 사망한 작곡가(바그너), 이 도시에 묻힌 작곡가(스트라빈스키)의 작품들을 정성껏 연주하였다. 스트라빈스키의 시편교향곡을 영상물로 만나볼 수 있는 멋진 기회이며, 파트리치아 치오피, 사라 밍가르도, 로베르토 사카, 니콜라스 리벵 등의 정상급 성악가들이 참여한 칼다라의 '테 데움' 역시 대단히 화려한 이 연주회의 메인 레퍼토리로 부족함이 없다.

돈 조반니 TDK DVD DVW-OPDG

수세기의 시공을 넘나드는 '타임머신 바람둥이'로 변신한 돈 죠반니
이 공연을 보면서 처음 얼마동안 연출이 신기하다고 생각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점점 기이한 느낌을 받게 된다. 무대 분위기가 바뀌고, 출연 가수들의 의상과 헤어스타일이 바뀌고, 액팅에도 일정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연출자 로베르토 데 시모네가 주인공 돈 조반니를 '수세기의 시공을 뛰어넘어 염문을 뿌리고 다니는 인물'로 그려냈기 때문이다. 그래서 16세기부터 19세기 후반까지의 유럽 사회의 단면이 이 오페라 한 편에 구현되고 있다. 1999년 빈의 테아테어 안 데어 빈(Theater an der Wien) 실황. 그러나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은 빈 슈타츠오퍼 팀이고, 가수진용도 당시 이미 중견으로 지금은 세계 최고 반열에 올라있는 카를로스 알바레즈(돈 조반니), 아드리아네 피촌카(돈나 안나), 안나 카테리나 안토나치(돈나 엘비라), 안젤리카 키르히슐라거(체를리나), 일데브란도 다르칸젤로(레포렐로), 미하엘 샤데(돈 오타비오)들이다. 또한 '제왕' 리카르도 무티가 강력한 카리스마로 물샐틈없는 연주를 펼치면서 로베르토 데 시모네와 함께 이탈리아 풍이 대폭 보강된 모차르트 오페라를 구현했다.

라 실피드 TDK DVD DVW-BLSYL

발레 블랑의 신기원을 이룬 1832년의 명작을 정교하게 재현한 공연
로맨틱 발레를 상징하는 것은 백색의 긴 튀튀를 입은 무용수들이 펼치는 이른바 발레 블랑(ballet blanc)이다. 이는 토슈즈를 사용한 포앵트 기교와 결합하여 더없이 환상적인 천상의 아름다움을 연출한다. 발레 역사에서 발레 블랑의 기원을 연 작품으로는 필리포 탈리오니의 〈라 실피드〉(1832)가 꼽힌다. 그러나 그의 안무는 전하지 않고 덴마크의 오귀스트 부르농빌이 안무는 물론 음악까지 바꾼 작품이 널리 알려져 왔다. 프랑스의 피에르 라코트는 광범위한 연구를 통하여 1971년에 〈라 실피드〉의 원형을 복원하는데 성공하고 이듬해 이 작품이 초연된 파리 오페라 발레 무대에 올렸다. 본 영상물은 필리포 탈리오니의 딸이자 1832년 초연 당시 라 실피드를 추었던 전설적인 발레리나 마리 탈리오니의 탄생 200주년을 맞아 파리 오페라 발레가 다시 무대에 올린 2004년 7월 실황이다. 우리 시대 최고의 발레리나 중 한 사람인 오렐리 듀퐁이 탈리오니를 재현했고, 파리 오페라 발레의 최연소 에투알(주역)인 매튜 가니오가 제임스 역을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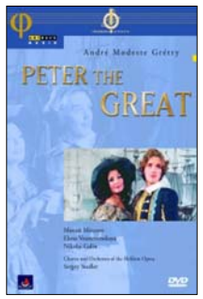


라 바야데르 – 다큐멘타리 TDK DVD DVUS-BLDDLB

누레예프의 마지막 안무를 재현하는 감동적인 다큐멘터리

〈라 바야데르〉는 오랫동안 러시아의 키로프 혹은 볼쇼이 발레만의 전유물이었다. 1961년에 이르러서야 키로프 발레 순회 공연을 통해 서구에 알려졌는데 그나마 '망령의 왕국' 으로 불리는 30여분간의 피날레만 선을 보였을 뿐이다. 러시아에서 망명한 루돌프 누레예프는 예술감독으로 자신의 마지막 인생을 불살랐던 파리 오페라 발레를 위해 중병에 걸린 몸으로 〈라 바야데르〉의 전막을 개정 안무했다. 이 새로운 프로덕션은 1992년 가을에 초연되었으며 그로부터 3개월도 안되어 누레예프는 세상을 떠났다. 이 다큐멘터리는 초연 당시에 주역을 맡았던 이자벨 게랭(니키야), 로랑 일레어(솔로르), 엘리자베트 플라텔(감자티)이 거의 10년만에 다시 모여 공연을 준비하는 모습을 담았다. 발레 미학의 극치를 보여주는 주역 무용수들의 완벽한 춤은 물론 누레예프에 대한 애정 어린 회고를 통해 깊은 감동을 체험하게 된다.

Arthaus DVD New Release



피에르 대제 Arthaus DVD 101 0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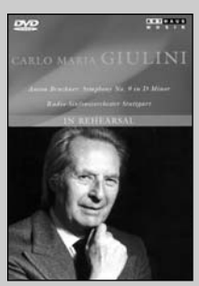
18세기의 거장 그레트리가 작곡한 러시아 황제 피터 대제의 사랑 이야기

앙드레 에르네스트 그레트리(1741~1813)는 벨기에서 태어나 이탈리아에 유학한 후 파리에 정착하여 최고의 인기를 누린 작곡가이다. 그의 오페라 〈피에르 대제〉는 러시아 황제 피터 1세를 소재로 삼은 역사상 첫 오페라이며 이를 기점으로 로르칭의 오페레타 〈황제와 목수〉를 비롯한 많은 작품이 쏟아졌다. 피터 대제는 민중의 삶에 뛰어들기 위해 자기 신분을 숨기고 조선소의 일꾼으로 일했다거나, 역시 신분을 숨기고 러시아의 서구 사절단에 참가한 다음에 본격적인 서구화 정책을 펼친 것으로 유명하다. 이 오페라는 평민의 딸을 사랑하게 된 황제의 이야기를 동화적으로 풀어나가며 모든 등장인물에게 미덕과 우정과 신의를 부여한 보기 드문 휴먼 오페라이다. 피터 1세가 자기 이름을 따서 건설한 페체르부르크 300주년(2003년)을 미리 축하하는 의미에서 모스크바의 헬리콘 오페라가 공연한 2002년 실황.

Obituary

이탈리아의 위대한 지휘자 카를로 마리아 쥴리니 영면하다

이탈리아가 낳은 위대한 지휘자 카를로 마리아 쥴리니가 2005년 6월 1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북부의 브레시아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91세. 쥴리니는 로마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에서 작곡과 지휘를 공부한 후 1944년 지휘자로 데뷔했고, 1952년부터는 밀라노 스칼라 오페라극장에서 일했다. 1955~78년 시카고 교향악단 상임지휘자, 1978~85년 LA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악 감독으로 재직했다. 여유로운 템포와 격정보다는 따스하고 유려한 선율을 중요시한 음악세계를 즐겼던 그는 1978년 우리나라 정명훈을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부지휘자로 발탁하고 이끌어준 은사이기도 하다. 리허설이나 콘서트에서 그가 보여주는 따스한 인간미나 지휘스타일을 잘 확인할 수 있는 영상물이 마침 지난 호(아울로스 뉴스 창간호 p.26)에서 소개되었었다.



Arthaus DVD 101 065

브루크너 : 교향곡 9번

연주 : 슈투트가르트 방송 교향악단
지휘 : 카를로 마리아 쥴리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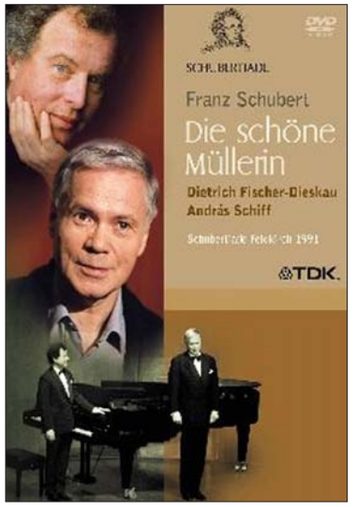
쥴리니의 따스한 눈빛과 자상한 제스추어로 악단을 이끄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좋은 영상물. 마침 레퍼토리도 그의 최고의 해석으로 정평이 나 있는 브루크너 교향곡 9번(리허설과 콘서트 영향이 함께 들어 있음)이라서 더할 나위 없이 높은 가치를 지닌 아이템이다.

TDK DVD

TDK DVD DVUS-CODSM

슈베르트 : 아름다운 물방앗간 아가씨

연주 : 디트리히 피셔-디스카우(바리톤) / 안드라스 쉬프(피아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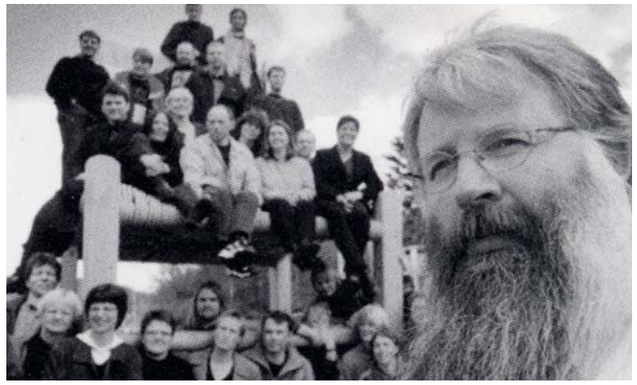


**20세기 위대한 슈베르트 가수의 '황혼의 콘서트' **

성악지망도는 물론 리트 반주를 희망하는 피아니스트들에게도 반드시 시청해야만할 훌륭한 교본과도 같은 영상물

슈베르트 가수의 대명사 피셔-디스카우, 요즘 그의 이름이 자주 등장한다. 그의 음반은 물론 영상물도 전보다 확실히 자주 눈에 띈다. 그 저명한 그리고 위대한 가수의 팔순(그는 1925년생이다)을 축하하기 위해 많은 아이템이 나왔고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TDK에서 새로 나온 이 영상물 역시 그 일환으로 발매된 것인데, 내용은 1991년 오스트리아 콘서트 실황의 영상이며, 슈베르트의 〈아름다운 물방앗간 아가씨〉다. 연주회 당시 피셔-디스카우의 나이는 66세, 하지만 훤칠한 키에 유난히 맑은 눈을 가진 그는 세련된 무대 매너로 〈물방앗간 아가씨〉 전곡을 깔끔하게 부른다. 피아니시모가 인상적인 '알고 싶어 하는 사람', '휴식' 등에서는 왕년 명가수의 내면적 성찰과 기품을 그대로 보여준다. 슈베르트 가곡이라면 피셔-디스카우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 〈아름다운 물방앗간 아가씨〉는 특히 〈겨울 여행〉만큼이나 각별한 레퍼토리다. 1945년 미군들에 의해 이탈리아에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도 밤이 되면 외롭고 고단한 수용소 사람들을 모아놓고 밤하늘에 고함치듯이 노래불러주던 레퍼토리이기도 하다. 평생 슈베르트를 불렀던 이 가수에게 이 작품과 얽힌 사연이 어디 그뿐일까? 확실히 그는 평생 슈베르트의 감성에 매료되어 살았던 사람이다. 만년에 가장 좋아하는 작곡가가 누구냐고 묻는 질문에 그 위대한 가수는 '소박하게도' 슈베르트라고 말했었다. 그를 반주하고 있는 반주자 안드라슈 쉬프도 특별하다. 이미 슈베르트 피아노 작품이나 가곡을 집중 녹음한 바 있는(페터 슈라이어와의 동곡 녹음도 있다) 그는 피셔-디스카우의 듬직한 파트너다. 보너스 트랙의 인터뷰에서는 음악가인 아들 얘기, 한창 지휘자로서 활동했던 얘기 등 그의 삶과 음악에 관한 중요한 얘기들도 많이 들려준다. 나이를 의심케 할 정도로 눈이 아주 맑고 훤칠한 키에 세련된 무대 매너를 갖춘 깔끔한 노신사의 모습, 특히 인터뷰에서의 모습은,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이지적인 은행원으로 나왔던 팀 로빈스를 연상시킨다. 그라모폰 6월호의 '이달의 DVD'로 선정되어 소개된 바 있다. 1991년 6월 20일, 오스트리아 펠트키르히(포어알베르크) 몬트포르트하우스 실황.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83분.

노르웨이의 혼성 합창단 스크루크(SKRUK)



독특한 레퍼토리와 소리로 유럽의 손꼽히는 합창단 중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는 스크루크(SKRUK)는 30년 역사를 가진 노르웨이의 유명 합창단이다. 합창단 명칭은 '순뫼레 기독교 청소년 합창단' 이란 뜻의 'Sunnmøre Kristelige Ungdomskor' 의 이니셜이다. 합창단원은 48명이며 노르웨이 각지에서 온 유능한 가수들인데, 합창단 이름이 암시하듯이 대부분은 노르웨이 서부연안 지역인 순뫼레와 관련되어 있다. 합창지휘자인 페르 오드바르 힐드레(Per Oddvar Hildre)는 1980년 이 합창단을 맡은 후 뛰어난 통솔력으로 놀라운 음악들을 많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합창의 마술사' 로 불린다. 지난 30년간 이 합창단은 노르웨이 전역에서 정규적으로 음악회를 열었다. 그들은 주로 많은 교회에서 노래를 했고, 노르웨이의 중요한 음악 페스티벌에도 종종 참가했다. 또 내셔널 티뷔(National TV)에도 자주 등장하고 노르웨이 방송국에서 그들의 음반을 자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노르웨이 내에서는 아주 잘 알려져 있다. 노르웨이 외에 스웨덴, 미국, 에콰도르, 아제르바이잔에서도 호평을 받았다.

대표적인 앨범들

FXCD 127

FXCD 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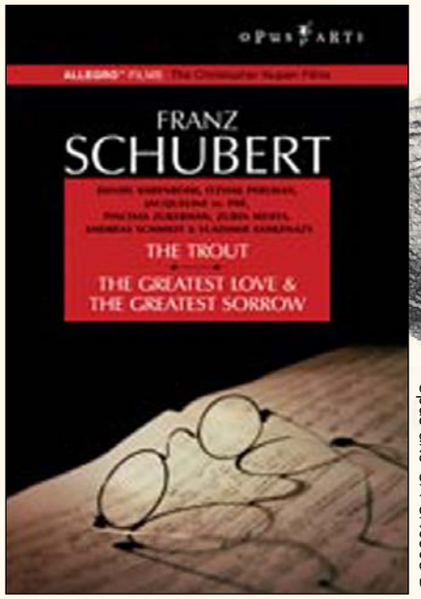
FXCD 206

FXCD 254

FXCD 283

위대한 사랑, 커다란 슬픔

Schubert : Trout Quintet



Opus arte OA CN0903 D

**** 우리 애호가들이 가장 기다리고 기다리던 영상물이 아닐까!**

**다니엘 바렌보임(pf), 이차크 펄먼(vn),
재클린 듀프레(vc), 핀커스 주커만(va), 주빈 메타(bass)
다섯 사람이 모여 연주한 슈베르트의 송어 오중주.**

1973년 뮌헨의 TZ-ROSE상 수상작이다. 바렌보임과 듀프레 두 천재 음악가와 지금은 거장의 칭호를 받고 있는 그들의 음악친구들이 함께한 유명한 필름. 보고 또 봐도 감동이 가시지 않는 이 영상물은 LD시대에 이미 접해본 애호가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 DVD에는 슈베르트의 삶과 예술에 대해 일목요연한 설명을 해주는 미니 슈베르트 전기 〈위대한 사랑, 커다란 슬픔〉까지 담았다. 1994년 프라하의 체코 크리스털 상 수상작인데, '베토벤의 장례식', '슈베르트의 묘비', '슈베르트의 꿈' 등 26개의 주제로 내레이터의 설명과 함께 슈베르트의 감동적인 음악이 가슴 깊이 스미게 만들었다. 감히 우리나라 음악애호가들이 가장 좋아할 영상물이라고 단언한다.

www.aulosmusic.co.kr

열광하라! 캡틴 핑거스가 돌아왔다

리 릿나워
Lee Ritenour

퓨크 레이블 데뷔작

‘Overtime’

포플레이 탈퇴 후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 밥 말리, 모타운에 대한 프로젝트 앨범, A Twist Of 시리즈를 통해 간간히 앨범을 발표하던 **컨템포러리 재즈계 최고의 기타리스트 리 릿나워(Lee Ritenou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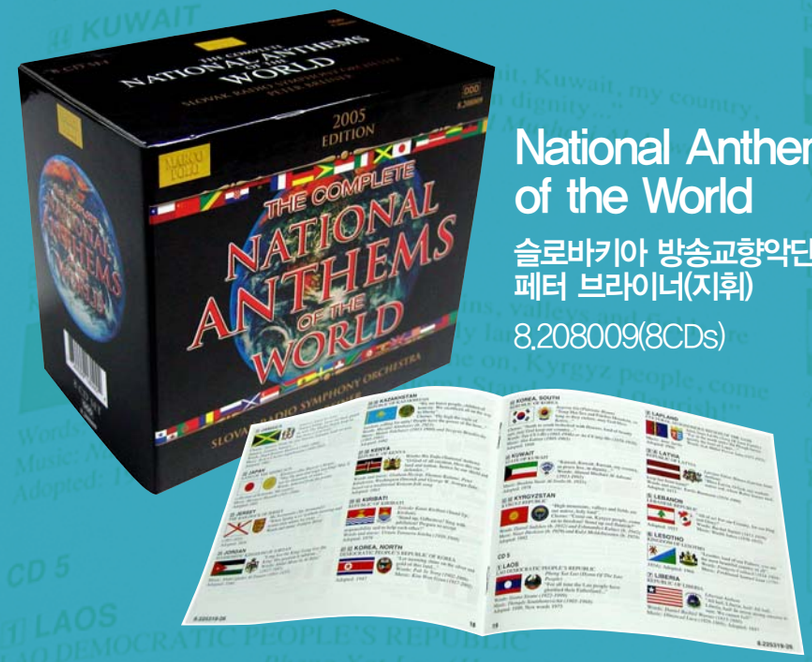
캡틴 핑거스의 변함없는 위용을 과시하며 마침내 그가 돌아왔다. 무려 3년 만에 신작 〈Overtime〉을 발표한 것이다. 그의 오랜 파트너인 데이브 그루신, 안소니 잭슨, 어니 왓츠, 하비 메이슨을 포함하여 크리스 보티, 이반 린스, 페트리스 러쉰 등의 참여는 가히 컨템포러리 재즈계의 올스타의 참여라 부를 만큼 화려하기 그지없다. 더욱이 오는 18일 직접 국내에서 그의 공연을 볼 수 있다니 앨범의 설레임을 공연장에서 직접 확인해보기 바란다.

*추천곡 : Track 7, 9, 13

www.aulosmusic.co.kr

전 세계 국가(國歌)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National Anthems of the World′



National Anthems of the World

슬로바키아 방송교향악단
페터 브라이너(지휘)

8.208009(8CDs)

동티모르, 팔레스타인과 같은 신생독립국은 물론 체첸 등의 자치국, 괌, 푸에르토리코와 같은 자치령은 물론 아직 독립국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티베트에 이르기까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275개의 국가, 자치국, 자치령의 국가를 완벽하게 수록하였다. 각 나라들의 국가와 국가문장을 수록한 내지 역시 학습자료로 대단히 유용할 것이다.

표지사진 : 베냐미노 질리

월간 〈아울로스뉴스〉 2005년 6월호
통권 제 2호 발행 : 2005년 6월 25일
발행인 : 임용묵
인쇄 : 투데이아트

발행처 : 주식회사 아울로스뮤직
주소 : 130-110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98-38번지 삼흥빌딩 2층
전화 : 02-922-0100, **팩스 :** 02-922-2522
홈페이지 : www.aulosmusic.co.kr
e-mail : aulos@aulosmusic.co.kr
원고 및 광고문의 : 02-922-0100(代)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은 본사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